



세계 역사는 물론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에 선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9월 14일 (토) 제 1746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트럼프 상대, 누가 “당선 가능성” 가장 높은가?

허핑턴포스트, 2020 민주당 예비 경선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분석 심층 보도

시더래피즈, 아이오와-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브 룩색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방법을 미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룩색은 아이오와주 제2선거구의 7선 현역의원이다. 이곳에서 버락 오바마는 두 번 승리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에 다수표를 얻었다. 룩색은 20년 동안 정치학 교수로 재직했고 아이오와 정치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룩색은 노동절인 9월 첫째 주까지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전부 만난 다음,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그가 지지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을 가장 중시하는 룩색의 입장은 민주당 주류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허프포스트/유고브의 3월 말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승산이 가장 높은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점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설문 문항의 표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으나, 넓게 보았을 때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경선이

일찍 실시되는 주의 설문조사, 선거캠프 및 관계자, 일반 유권자 인터뷰에 따르면, 어떤 후보가 트럼프를 상대로 가장 승산이 있을지에 대한 견해가 민주당 경선의 최종 승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견해와 이론이 난무하는 중이다. 조 바이든은 ‘러스트 벨트(Rust Belt, 쇠퇴한 공업지역)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엘리자베스 워렌은 ‘힐러리 클린턴과 좀 비슷하지 않아?’ 버니 샌더스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이길 거야!’ 이런 얘기들의 근거는 희박하다. 유권자들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반면 승산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그건 유권자들, 심지어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조차 잘 모른다.

2020년 재선을 노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룩색은 승산이 어떨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은 정말 유동적이다.” 오바마-트럼프 선거구의 의원이자 정치학 박사인 정치 전문가 조차 트럼프를 이길 최적의 후보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Every 2020 Democrat Wants To Be The Electable Candidate: But what does that even mean?)?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주요 후보들은 자신들이 공화당을 꺾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안달이 나 있다. 클로버바는 민주당 성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우세 정당이 계속 바뀌는 주)로 분류되는 미네소타의 시골 지역에서 승리한 전력을 내세운다. 샌더스는 치열한 선거 레이스에 대해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캠프 코워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킥퍼런스 콜에서 샌더스가 승리를 거둘 방법을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의 측근들은 그의 강인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임소문을 타는 순간들’로 트럼프 정부에 책임을 물을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South Bend)의 피트 부티지 지 시장은 갑자기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왔으며, 모금액도 크게 늘었다. 중서부(Midwest) 지역 출신인 그가 이 지역 유권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영향을 끼쳤다. 3

월 27일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자신의 선거캠프 위원장이 쓴 1600자짜리 글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워렌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반박하기 위한 글이었다. 뉴저지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지지자들은 과거 대선에서 오바마가 두 번 연속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줬던 지지층 연합을 부커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지난달에 아이오와에 나타난 비토 오루크 전 텍사스 하원의원은 자신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도전해 아깝게 졌지만, 함께 치러진 주 단위 선거에서 자신이 다른 후보들에게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

이런 사례들은 몇 가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그룹 ‘써드 웨이(Third Way)’의 라나 에릭슨은 민주당 선출직 당선자 및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7가지 이론을 분석했다.

(3면으로 계속)



KAPC 뉴욕노회 85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기사 10면).

뉴욕일원장로교단 정기노회...교협 총회준비

KAPC 뉴욕서노회 시작 뉴욕, 뉴욕남, 가든, 뉴욕동 KPCA 뉴욕노회, 동북노회 뉴욕교협 제 46회기 정부회장 임후보 마감

여름철 단기선교 시즌이 지나고 9월이 되면서 뉴욕일원 교계에 각 교단 노회가 일제히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가을노회를 통해 교단별 노회별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주내 대표적 한인 장로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와 해외한인장로회(KPCA, 이기성 목사)의 뉴욕일원 노회들이 일제히 정기노회를 가졌다(관련기사 9면, 10면).

지난 3일 KAPC 뉴욕서노회, 10일 뉴욕노회, 뉴욕남노회, 가든노회, 17일 뉴욕동노회가 정기노회를 가졌다.

또 KPCA 뉴욕노회와 동북노회

는 10일 각각 정기노회를 가졌다. 한편 뉴욕교협도 지난 6일 오후 5시 제 46회기 정부회장 감사, 임후보 마감을 마쳤다.

임후보자는 회장에는 현재 부회장인 양민석 목사(뉴욕그렛잇백교회 담임), 부회장은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단독 출마했다.

평신도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현 이사장 손성대 장로(퀸스한인교회)가 등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9월 13일(금) 임후보자 서류심사 후 총회공고 및 임후보자 공고를 내게 된다. 총회는 10월 21일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시론 이종진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타인에게 친절하고 아기를 갖지 마라

16면

ATS와 ABHE 권위 인정 최고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i.edu | (714) 33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3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 26회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 세미나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ETHODIST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일 시: 2019년 10월 7일(월), 8일(화) 10:00am~9:30pm

장 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비전센터 2층)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대 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사모

참가비: \$20(선착순 100명)

강사: 피종진목사(남서울중앙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설동욱목사(예정교회), 박태남목사(정릉뽕엘교회), 정삼숙사모(성안교회)

주최: 목회자 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목사, 발행인 설동욱목사)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목사, 사장 이영선목사)

문의: 김대섭행정목사(714.336.4478 / dskim143@gmail.com)

● 발행인 칼럼 ●

조국(祖國)에 법의 정신(精神)은 어디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원로목사님을 찾아뵈었다. 누워 계셨지만 따듯하게 “김성국 목사”라고 부르시더니 단호(斷乎)하게 말씀을 하셨다. “공산당과 싸워야해!” 그리고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셨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힘드신 가운데 조국(祖國)에 대한 염려와 고향(故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계신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가.

어떻게 갖게 되고 어떻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넘실대는 무언이며 사회주의가 끼어들어 온 말인가. 우리 모두가 바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떠나온 나라에 대한 걱정과 기도가 떠나지 않고 그리움이 가지지 않는다. 특별히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정신(精神)이 크게 훼손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모든 존재(存在)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면서 자연법이라 부른다. 사람은 자연법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사회법을 만들어 갔다. 이 또한 하나님이 기안자(起案者)이신데 법의 기원과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어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은 공산주의처럼 하나님을 배도(背道)하거나 사회주의처럼 인간을 황폐(荒廢)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종교의 자유를 돕고서 방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능(機能)이 있고 인간을 이념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규정이 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법은 그 법의 외적인 모습인 합법성(合法性)만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 법의 내적인 모습인 도덕성(道德性)을 동일하게 요정한다. 법을 지키는데 합법성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선의 길로 가고 마침내 편법과 탈법의 사람이 된다. 누구나 그러서는 안 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조심할 일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사이에서 법의 일탈(逸脫)을 일삼으면 그 공동체의 평화는 사라지고 탄식이 깊어지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한편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도 함께 가지면 안 된다. 지도자가 자기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부정(否定)한다면 갈등과 충돌은 물론이요 나아가 양쪽 다 버거운 투쟁(鬪爭)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저런 면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君主論)을 다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가 오래 전에 말한 “군주는 어느 말 한 마디도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오늘 날도 매우 적실(適實)하고 우리의 조국(祖國)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 법에 담고 있다. 그 가치가 더 공고(鞏固)해지고 발전될지언정 훼손이나 다른 것으로의 대치(代置)는 있을 수 없다. 칼럼 제목에서의 물음을 다시 묻고 싶다. “조국(祖國)에 법의 정신(精神)은 어디로?” 그 질문은 나에게도 필요하다. 목회에 합법성만 내세우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고 또 그 합법성이라는 것조차 슬금슬금 감아먹다가 위선(僞善)과 일탈(逸脫)의 길로 들어서셔야 되겠는가.

가을바람이 분다. 나도 지금까지 그 방향을 지향해왔지만 원로목사님의 말씀을 더욱 예사롭게 여기지 않을 터이다. 목사님이 고향과 분향을 생각하며 부르신 노래를 가벼운 노래로 여기지 않을 터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영적 필요” 채운다!

처치리더스컴, 앤디 로렌슨 목사에게 듣는 디지털 세대 사역전략 소개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주말에 몰려다니며 지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다녔다. 롤러스케이팅도 탔고, 캠핑도 가고, 게임도 했다. 수요일 밤마다 어울려 다니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내내 그랬다.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이런 게 친구의 기회가 됐다. 탁월한 젊은 사역자가 주는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려 교회에 가지 않았다. 또래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다. “교회에 가야 하나?”라고 자문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가 선택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부모님이 그 부분에 큰 역할을 하셨다.

약 25년 전 필자(앤디 로렌슨, Andy

Lawrenson)가 청소년 사역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학생들은 나와 같았다. 친구로 서로 연결돼 몰려다니며 여러 활동을 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당시 이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화였다.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휴대전화가 나왔지만 휴대전화는 그저 전화를 거는 한 가지 일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몰려다니며 이런 저런 활동하는 것을 즐겼다. 학생들은 얼굴을 맞대며 연결되기를 바랐다(Youth Group No Longer Fills a Social Need-Now What?).

(앤디 로렌슨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네그스 헤드(Nags Head)’ 교회에서 학생과 사역 팀을 맡고 있는 목사다. 25년 동안 자원봉사와 유급으로 학생사역을 해왔다.)

을... 항상 해왔던 대로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는 지났다. 2017년과 2018년에,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청소년 사역을 생각할 때다.

청소년 사역을 생동감 있고 타당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접근 변화는 무엇이어야 할까?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파괴했는가?”(에틀랜트 지). “아이들과 스마트폰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한다.”(타임 지).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사역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공통처럼 소멸할 것인지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리더십과 많은 장년들이 전통에 너무 몰입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힘든 싸움을 대면하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과 많은 장년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수요일 밤에는 청소년들이 있어, 주일학교는 항상 주일 아침에 있고, 주일 밤은 제자훈련 연합수업이야!”라고 말한다. 교회와 교회 리더십이 필요한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교회와 교회

2013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청소년 사역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과 교회의 학생 참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11년이나 12년 전, 심지어 5년 전까지도 아이들이 줄을 섰다. 그러나 작년 캠프 참석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 작년에 행사가 두 개 있었는데, 학생 두 명, 고작 학생 두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취소해야만 했다. 그 중 하나는 앙겜게임이었기에, 그저 그런 행사도 아니었다. 금요일 밤 축구경기에도

내려갔다. 좋은 나쁜 스마트폰이 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성적인 관심도 떨어졌다. 왜 그럴까?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있느라 수년 전 학생들이 하던 것처럼 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보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화면을 보고, 문자를 하고, 인터넷 대화로 친구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

이들의 친구의 욕구가 다른 곳에서 채워지고 있다면 어떻게



청소년 친교, 스마트 폰으로 해결...교회 오지 않아 제자도 가르치기, 일대일 멘토형성, 부모 동참시켜

이런 것이 목도됐다.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나?

좌절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읽으며 청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 다른 청소년 사역자에게 전하고 보니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 한 친구가 사역하는 청소년들은 80명에서 그 다음 해에 겨우 25명으로 줄어 들었지만, 이들은 80명 규모에 맞춰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1세대 또는 2세대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들은 거의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알게 된 세대다. 여러 기사와 연구를 읽어

어 자살도 2배나 늘었다. 왜 그럴까? 스스로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애착에서 시작되는 끊임없는 폭력과 외로움 때문이고 이는 실재 없이 인터넷 대화와 SNS에서 시행되고 있다.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런 기사 중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회, 청소년과 연결된 것이 없었다. 여러 기사들은 전부 심대의 정신상태에 대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의 결과로서 심대의 친교적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살펴보고 있었다.

필자는 인생에서 주로 친구의 욕구를 채우던 청소년기로 돌아갔다. 당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고 때를 지어 볼

게 청소년을 돌아보았는가? 필자는 청소년들이 변했고 현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운전면허증을 따느라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기억하는가? 지금 교회는 스마트폰을 얻은 청소년들을 잃고 있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리더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의견이 있다: △평가하기: 몇 년 전과 오늘날의 청소년을 비교할 때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내선) (323) 665-0009 (광고)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내선) (718) 886-4424 (광고)
· Fax (718) 886-0074 (내선)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xcept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제18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8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0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9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9년 12월 18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T. 847-359-5200 F. 847-359-8409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눈에!

다 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에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참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회(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후 해당 리스팅 내에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4) 리스딩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출판(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컬러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전면컬러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아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800.00
(컬러)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7.7cm x 11.7cm	
전면 1/8	15.5 x 2.8cm	\$250.00
	7.7cm x 5.8cm	
출판 Listing	Listing size	\$100.00

1) 교회(기관)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정확하게)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트럼프 상대, 누가 “당선 가능성” 가장 높을까?

〈1면에서 계속〉

▲유권자 동원을 통한 승리: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와 유색 인종들에 집중해야 하며, 인구 구성이 다양한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남부 ‘선 벨트(Sun Belt)’ 주들에 집중해야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538명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식탁 이론: 후보의 이념보다는 좁은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는 ‘문화 전쟁’은 피해야 한다.

▲포퓰리스트 이론: 계급 문제를 대놓고 언급하며 경제 불평등에 집중하라. 이 이론의 가장 야심찬 버전에 따르면, 민주당이 시골 지역에서 크게 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몬태나,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공화당 지지가 강한 주(Red state)들도 흔들 것이라 말한다.

▲온건파에 집중하라: ‘당파는 국가와 화합을 내세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러스트 벨트 주의 유권자들을 다시 가져온다.’



▲싸워라: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도 꺾었다. 그 누구도 트럼프만큼 열심히, 혹은 더럽게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트럼프와 똑같이 세계 나가면

이길 것이다.

▲순수함: 민주당은 분명하고 뒤흔치게 진보주의를 내세워서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반응할 것이다.

▲넓은 길: 트럼프를 보다 큰

표차로 꺾으려면 민주당의 공약과 신념체계 중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 한다.

각각의 후보들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며 내세우는 주장들은 단순히 진보 대 기득권 대 이념의 대결이 아니다. 인구 구성, 개인적 스타일, 정치적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로 보인다. 경선이 일찍 시작되는 주의 유권자들은 흔히 워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워렌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워렌이 약 8세대 전에 미국 원주민 선조가 있었을 수 있다는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자 워렌의 정치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원이 많았다. 초기 경선 주들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DNA 검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한 승산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자주 거론된다. 〈5면으로 계속〉

시론

질문과 청문에서 공감의 대화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사람의 소통방식은 말(言語)이다. 때로 감(感)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할 수도 있지만,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한국의 청문회를 통해 말이 어떻게 오고가는지를 보았다. 이런 싸움은 정치판에서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사회성을 처음 배우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거칠고 강렬한 공격과 교묘하고 위선적인 수비가 부딪치는 가운데 말다툼

은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자랐다. 이 싸움은 단순한 언어싸움이 아니라 각각의 자존심과 명예와 나아가 존재성을 건, 사실상 전투이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든지 어느 쪽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든 계속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은 너무도 많다. ‘말 한마디로 천 냥빔을 갚는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틀어지고, 미워하는 적을 만들어낸다. 또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수많은 적군들이 되어 긴장대치상태로 살아가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토라를 소리내어 읽는다. 몇 차례 방문해본 회당의 집회에서 어린아이와 나이든 랍비가 함께 토라를 읽는 모습을 기억한다. 한국의 국어수업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졌을 때 기대를 했었다. 국어책에 밑줄 그어가며 품사를 외우고 문장구성 형식을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교육이 없던 국어시간에 말하기를 따로 배우고, 듣기와 쓰기 읽기도 가르쳐 주었구나 기대했었다. 그러나, 가끔 시나 시조를 배울 때나 책 읽는 소리가 날 뿐, 여전히 글 속에 묶인 국어교육은 며칠간 바라본 청문회와 같은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 초등학교 아이들의 자기 소개말을 들어보자. ‘햇빛초등학교 4학년 3반 홍길동입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의 억양고저가 얼마나 닮아있는지. 또한 사춘기를 지나며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자. 듣고 있기에 민망할 정도의 비속어와 욕설이 오갈 뿐 언어나 문장은 물론 단정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기 힘들다. 그러면 성인들의 언어는 괜찮은가? 대상없는 화풀이 언어와 유머라며 던지는 조롱의 언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독(毒)언어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책임지않는(朗讀不在) 현상에서 찾아본다. 미국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하며 발견한 것이 ‘크게 소리내어 읽기(Read Aloud)’라는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선생은 크고 정감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책을 읽어주고, 학생들도 큰 소리로 책을 읽도록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그 수업을 보면서 오래전 아나운서로 임문했을 때 들었던 선배의 교육이 떠올랐었다. “가장 좋은 방송은 얼마나 원고를 잘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원고없이 말하듯 전달하는가이다.” 그 후에야 호흡법, 발성법, 문장의 이어짐, 인터뷰 방법 등 언어기술을 교육받았었다. 말하는 기술 이전에 말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었다.

언어는 공격언어와 수비언어로 나누어야하는 싸움기술이 아니다. 성경은 외치는 언어(선포)와 고백의 언어(기도) 그리고 올려주는 언어(對人관계) 그리고 높여드리는 언어(찬양)를 통해 대화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듣는 언어(침묵, 묵상)를 강조해주고 있다.

〈4면으로 계속〉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영적 필요" 채운다!

〈2면에서 계속〉

본인의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계획 세우기: 청소년들의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좀 전의 평가를 연구해야 한다. 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계획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 봉사하는 그룹이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의견은 꼭꼭 여정에 중요하다.

△비전 제시하기: 봉사자들과 함께 평가와 계획을 세우고, 교회 리더십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오늘날 학생들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야기 나눠, 여러분이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해야 한다. 그 후에 부모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하기: 평가·계획·비전을 제시하고 나면, 계획을 이행할 목표 날짜를 설정할 시간이다. 변화는 쇄신해 자연스럽게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겨우 몇 주 지났다고 그 계획을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 계획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변화는 우리에게도, 봉사자에게도, 교회에게도 쉽지 않지만, 시간을 줘야 한다. 리더트레크(LeaderTreks)는 “건강한 청소년 사역 평가(Healthy Youth

Ministry Assessment)”를 평가하고 계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들의 제품 리셋(Reset)은 결정적이었다. 리셋은 건강 평가의 결과로서 필요한 변화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 리셋에서 받은 지도로 변화에 필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어떤 평가나 지도를 계속 고찰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더 이상 필요한 친구의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친교의 욕구에 있어서 기술과 경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이번 수요일에 청소년들은 역사를 쓰게 될 거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라고 말할 수 있었다. 엄청난 간식을 제공하고 재밌는 게임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모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간식이 시시해졌고 게임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만큼 인상적이지 못했다. 20명의 친구들과 문자를 하며 집에 앉아 얻는 만족을 뛰어 넘을 만큼 재밌지 않았다.

우리가 친교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면 남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자산과 힘,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필자의 가슴 속에는 제자도가 있었다. 한 반이나 그룹으로 학생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제자도를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를 일대일로 가르치는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발로 뛰며 미약하지만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 아이들의 청소년 모임이나 교회 참석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사역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리더트레크 제자도 모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 가지 전략:

1. 제자도 가르치기
일 년에 한 번 소그룹으로 제자도를 가르친다. 제자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하고 무시하도록 한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이끌어 가는 것이다.

2. 제자 관계
어떤 학생들은 제자 관계를 바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 멘토 관계
봉사팀은 리더 한 명에 학생 두 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속된다. 우리는 이런 관계와 책임을 맡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밤 봉사팀보다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필자가 맡고 있고,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성인을 찾고 있다. 이런 멘토는 주일 밤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삶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

의 주요 도구는? 감이 왔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우리는 청소년 모임 밖에서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나서 매주 문자와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소년 모임이나 심지어 완전히 실종된 청소년 모임에서 영향을 받거나 빠질 것이기 때문에, 돌봐주는 어른과의 이런 관계는 졸업 후에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부모사역의 세계를 통해 청소년 사역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매달 주일 밤에 자녀들이 학생 예배당에 있는 동안 부모를 만나기 시작했다. 1월에 부모를 위해서 ‘기초 건축가: 집에서 시작되는 자녀와의 제자도 여정’이라는 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 수업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요 교사가 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넘어 자녀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공에 중요할 것이다.

우리 세계의 변화와 함께, 학생 사역은 어른과 학생 둘 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성취하며, 교회 안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향할 방향을 좇거나 심지어 앞설 것이라고 믿는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도마한인교회)

어거스틴 (1)

하버드대 철학교수 화이트 헤드(White Head)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Augustin354-430)의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호르다인(William Hordein)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천년에 한번 씩 나온다면 세상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칼뱅의 주권신학이나 말틴 루터의 칭의신학이 태동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나 영웅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웅이나 천재가 단 명하지 않을 때 인류는 그를 통해 더 많은 유익을 입습니다. 대단한 천재라도 너무 단명하면 그 귀한 재능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악가나 화가들 중에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은 77세까지 장수하면서 177권의 책을 썼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칭의와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양철학사의 시조로 존증을 받는데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으나 근원에서 사유하는

철학자 셋을 굳이 꼽는다면, 플라톤, 어거스틴, 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어거스틴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의 알제리의 다카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 흩어져 살고 있는 베르베르족으로 얼굴이 약간 가무잡잡한 사람입니다(불란서의 축구선수 지네단 지단이 베르베르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가톨릭의 4대 박사 중 한분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지극히 탁월한 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향에서 공부하고 한니발의 활동무대이었던 칼타고 유학을 갔으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함을 본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어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그 후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시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여 월계관을 총독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칼타고에 행행하는 마니교에 입교할 정도로 영

혼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한 소녀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18살에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음으로 어머니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니카에게 큰 고통과 더불어 아들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이 되게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신앙과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로 매달리게 만든 동인이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회고록에서 어머니의 신앙 생활을 기록하기를, “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교회를 갔고, 매일 예물을 드렸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이 있는 어거스틴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당시 칼타고의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전혀 진지함이 없었고 학문에 대한 열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변의 권고도 있었고, 당시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로마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야 하는 일이었고,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그 일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는 29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설득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니면 로마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 산다면 더욱 방탕한 길을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럴듯하게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칼타고 바닷가에는 키프리아누스(Cyprianus, 교회 일치의 선봉으로 AD 258년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순교함)의 기념 교회의 잔해가 지금도 쓸쓸하게 남아있습니다. 강대상의 터는 지중해를 향해 있었고, 로마로 가는 배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사이 어거스틴은 몰래 빠져나와 배를 타고 배는 천천히 로마

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키프리아누스 교회 터 담벼락에는 동판으로 이 일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383년, 어거스틴을 떠나보내며 모니카가 눈물 흘렸던 곳.”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들이 없어 황급히 나가보니 로마를 향하는 배는 이미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을 때 그 떠나는 배를 바라보는 모니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던 칼타고가 1600년이 흐른 지금 모슬렘으로 덧칠해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난민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로 떠났던 바로 그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지중해의 파야란 물결이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가슴에 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조차 잊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드넓은 지중해는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고 말합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메시아장로교회)



선교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선교란 종교를 선포하여 널리 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교에게 선교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진정한 선교란 단지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란 그야말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자신이 그 명령의 수행자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더 나아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을 선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선교사로 활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여 년간 현대교회들에서는 ‘선교적 교회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라는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선교사님들보다도 지역교회와 성도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적 태도, 사도, 행동, 실천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운동은 교회를 프로그램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관심을 내부에서 외부로, 또 프로그램 개발에서 인간개발로, 그리고 교회기반에서 보다 넓은 하나님 나라 기반으로 이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어스틴(Austin) 라이프교회의 조나단 닷슨 목사는 선교적 교회 실천의 방

법으로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1)신앙 갖지 않은 동료, 이웃과 식사하라.
- 2)주로 걷고 만나서 사람에게 인사하라.
- 3)웃어라. 질문하라. 친구가 되라. 나눠라.
- 4)비기독교인들과 취미를 함께 하라.
- 5)동료 4명 선택해 그를 위해 기도하라.
- 6)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라.
- 7)TV 보는 대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라.
- 8)크고 작은 이웃의 일에 도움주고 섬겨라.

선교적 교회운동은 한 마디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

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먼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또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늘날에 와서야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부터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였

하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친구도 되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이 본래 기독교 신앙이죠.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운동이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교회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열려가 많은 삶을 살다보니까, 도리어 교회는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질을 회

복할 수 있는가?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적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도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저절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도에도 힘쓰면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도, 물질이 부족해서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성령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 태만함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도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무슨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는 환경에 살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위기를 가지고, 다시금 기도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절

도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1절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가장 먼저 연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처음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핍박 가운데도 죽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기적 등, 여러 가지 기적이 초대교회 가운데 늘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전도에 힘쓰며, 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한 인사회는 복음화율이 높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은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이 많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대상자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일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며, 또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 일을 잘 하셔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하늘나라에서 더욱 귀한 상급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syhan91@hotmail.com

선교적 삶을 살자

사도행전 5장 42절

둘째, 편안보다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변교회 원로목사이신 김명혁 목사님은 어느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근현대사 70년 동안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 “그게 오히려 역설적 축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난 없이 편안하고 부유한 시기라서 한국교회에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고난으로 더욱 천국소망의 신앙으로 단단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

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 더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게으른 영적 삶인 것이죠, 결코 고난을 자초하는 선교적 삶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충만과 전도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이에 우리의 기도와 전

시론

(3면에서 계속)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중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게 그랜, 공감할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특강 강사들, 때문 청산유수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동네 아저씨나 한 주제로 몇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성들의 대

화를 모두 말 잘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조건은 공감(共感)이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감정이입(empathy)인 동시에 동정심과 연민과 동의하

는 마음(symathy)까지를 뜻한다. 왜 청문회와 같은 자리가 투쟁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가? 공감을 위한 말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말만 쏟아내기 때문이다. 왜 대화할 친구가 없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기보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요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서 말하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죽이려했고 결국 외국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분노의 복수의 말을 해야 할 때 용서와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소리나 내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면 요셉을 배워야하지 않을까. 비열한 농담을 하면서 유머라고 착각하지 말고, 조리 있는 항변을 하면서 정직하다 자위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값없

이 은혜 받은 자의 겸손과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존중과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마침내 공동체로서의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눈빛에서도 사랑이 흘러내리는 대화를 하시던 광야와 호숫가를 거니시던 예수를 만나러가자.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텍사스 한 도시의 용기 있는 시의회 결정! Drag Queen Story Hours 금지!!

지난 8월 15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북서쪽으로 22마일 떨어진 리엔더(Leander)라는 도시의 시의회에서 공립 도서관 회의실을 일반단체에게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것을 시의원들이 5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 달라스에 있는 지역 도서관들마다 친동성애 인권 운동단체들이 공공도서관 회의실을 빌려서 아주 어리개는 2살반에서 초등학교 생들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준다면 그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혼돈시키는 내용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Story Hour에 읽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책을 읽어주러 나왔다는 Drag Queen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여장을 한 남성들로서, 얼굴화장부터 옷 입은 것이 매우 자극적이고 무섭기 까지 한데, 주로 "Adult Nightclub-성인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몇년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미셸 오바마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의 모습을 재현한 Jorge Alcantara가 "어린이들에게



Drag Queen Story Hours에 여장한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들

여러 변태적 성향들을 읽어들 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너무 즐거웠다"라는 아래처럼 글까지 남긴 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Drag Queen Story Time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친동성애 및 친트랜스젠더 정책을 미 전역에 대통령령으로 의무화 시킬 때부터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좌파성향이 짙은 도시, 주정부들이 있는 곳들은 Drag Queen Story Hour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달라스 리엔더 도시의 7명중 5명의 투표로 "Drag Queen 스토리 타임"을 도서관에서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둔 학부모와 다음 세대의 건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Texas Values 단체의

정책 고문인 Mary Elizabeth Castle은 Drag Queen 에 대해 말하길 "아이들에게 스토리타임을 읽어주는 여장을 한 남성들은 실제로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아기들도 성적 성향이 태어난 것과 다를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 책들만 권면한다"고 합니다.

한편 리엔더)도시의 시장인 Troy Hill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Drag Queen Story Time은 도시에 이득이 전혀 없다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서관 회의실 임대료로 1800불씩 받는데, 그들의 행사를 위한 보안 유지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만 달러씩 사용했어야 했다. 아무리 계산해도 말이 안 되는 수학이 아닌가?"라고요.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 책임자로 있는 Emilie Kao는 "Drag Queen Story

Hours는 아이들에게 해롭고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들을 조기 성적 도구화 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부모들과 지역 사회, 지역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 성인용 오락회를 개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즉, Drag Queen Story Hour을 지지하던 2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말하길 '이번 결정은 동성애자들과 드랜스젠더를 전혀 포용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때 인권단체로는 가장 큰 힘을 실어주던 ACLU, 그리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exas Library Association들은 이번에 찬성

표를 던진 리엔더 시의원들과 리엔더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협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표를 던진 리엔더 시의원들과 리엔더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협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싸움에 앞장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세계 개신교회의 선교시초를 말할 때 주로 18세기 말 윌리엄 케리의 인도 선교를 보통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부흥강사님의 설교에서는 독일의 모라비안들이 오히려 개신교의 선교 시초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모라비안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개신교 선교의 시초는 18세기 말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를 인도로 파송한 영국 교회를 개신교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질문한 것처럼 독일의 모라비안들이 오히려 50년 전에 1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을 선교의 시초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역사적 근거입니다. 다만 모라비안 공동체인 이 단체는 너무 작아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최초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2명의 젊은 형제들이었는데 인도 서쪽의 섬에 복음을 전하려 갈 때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다. 왜냐하면 그 섬에서 선교사는 받아 주지 않고 노예만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의 지도자인 진젠돌프는 1732년(1727년 '몰든 서머' 부흥) 레온 하르트 도버(Leonhard Dober)와 다비드 니츠만(David Nitschmann)을 서인도로 파송하였고, 이듬해 크리스티안 다비드(Christian David)를 파송하는 한편, 독일 남부와 동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발트해 연안의 나라들, 아프리카의 골드코스트, 남아프리카 등지 등 러시아, 북미와 서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진젠돌프는 선교지를 직접 다니면서 해외선교사를 돌려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어쩔거나 파이오니어 선교사를 파송한

진젠돌프, 헤른후트에서 공동체 만들어 연속기도

것입니다. 당시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많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지에서 죽자마자 즉시로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선임 선교사를 대신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 그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길이었습니다. 이들의 불길은 크지는 않았지만 큰 불길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주의운동이 해외 선교를 주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건주의운동으로 태동된 덴마크-할레 선교회가 18세기 1세기 동안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반면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 4배에 육박하는 226명을 파송하여 근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진젠돌프(Nikolaus Ludwig Reichsgraf von Zinzendorf, 1700-1760)는 개신교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카톨릭의 반 종교 개혁운동(Counter Reformation)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아 흩어진 모라비아의 신앙인들, 후스를 따르는 보헤미아(현 체코) 모라비아 형제단들이 1722년 90명의 신도들이 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인 진젠돌프는 자신의 영토인 헤른후트(주님의 watch 라는 의미)에 피신해 살도록 허락했고 기독교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1727년부터 남 24명, 여 24명으로 구성된 기도모임(들)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자정부터 한 팀이 한 시간씩 24시간 연속적인 기도(禱禱)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727년에 시작한 이 기도회는 그로부터 백년 이상 지속됐으며, 기도를 시작한 때로부터 2백년 동안 모든 대륙에 수백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업을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신교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상대, 누가 "당선 가능성" 가장 높은가?

(3면에서 계속)
워렌은 트럼프와 붙어볼 만했지만 머뭇거렸다.

샌더스는 2016년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우려를 샀다. 지금 워렌도 비슷한 처지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워렌이 내놓은 야심찬 계획들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진보적인 후보들이 겪고 있는 큰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데... 언론들은 당선 가능성과 과감한 변혁적 구상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두 가지는 꼭 붙어있는 하나다."

워렌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클린턴과의 비교다. 출마 선언 전부터 시달려왔다. 똑똑하고 나이 많은 금발 여성이 트럼프를 이기지 못했다면, 다른 여성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워렌이 이런 비교를 당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후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버지니아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제니퍼 로리스는 말한다.

"그녀는 앞장서서 도널드 트럼프와 싸웠고, 다른 여성 후보들은 그러지 않았다." 로리스가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했던 비판 중 상당수

가 워렌에게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워렌을, 그의 스타일과 정책적 입장을 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워렌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허프포스트의 설문 조사로도 뒷받침된다. 민주당 유권자 대다수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로 꼽은 유일한 정치인은 유력 주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다. 69%가 바이든은 트럼프를 꺾을 수 있다고 봤다. 샌더스가 49%로 한참 뒤쳐진 2위를 기록했다. 오루크는 43%, 해리스는 37%였다.

또 연령에 대한 우려도 있다. 35%가 70세 이상의 후보는 불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선거일(2020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샌더스, 바이든, 워렌이 70세가 넘는다(트럼프는 74세가 된다).

현재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가장 승산이 높다고 본다. 바이든 측도 그렇게 생각한다. 1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은 "백악관을 노리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후보들이 핵심 지역인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을 떠난 백인 유권자들을 되찾아 오려면 기독교 정치인 중 하나가 후보로 나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합의가 민주당에 퍼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틀린 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015년 8월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웨스트버지니아를 되찾아오기에 가장 적절한 후보가 클린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다. 클린턴은 웨스트버지니아의 모든 카운티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했고, 주 전체에서 총 26%의 표만 가져왔다. 민주당 후보의 웨스트버지니아 득표율 중 역대 최악의 성적이었다.

2016년 경선 당시 '클린턴은 이길 수 있지만 샌더스는 이기지 못할 것'이란 가정은 민주당 선출직들(2020년 경선에서 이들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이 압도적으로 클린턴을 지지하도록 이끈 이유 중 하나였다. 여론 조사에서는 샌더스가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상대로 승산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말이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백인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고(검정된 바는 없다) 오바마와 친밀하기 때문에 흑인 유권자들도 끌어올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그래서 바이든은 이번 달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을 '오바마-바이든 민주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진보파는 이런 이론은 바이든이 민주당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좌파단체 '진보를 위한 데이터(Data for Progress)'를 운영하는 트위터 평론가 셉 맥엘워니야는 바이든이 가계 파산을 어렵게 하는 법을 지지했던 일부터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던 것까지 그의 의정활동 기록을 제시하며 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성, 밀레니얼 세대, 유색인종은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글을 썼다.

샌더스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샌더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심스텝 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 샌더스 선거캠프 측은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샌더스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무엇에 대해 트럼프를 공격하고 심지어 폭스 뉴스에 출연하기까지 하는 등 샌더스의 행보를 보면, 그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경선이 아니라 2020년 대선이 치러질 11월에 달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을 '오바마-바이든 민주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샌더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심스텝 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 샌더스 선거캠프 측은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샌더스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샌더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심스텝 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 샌더스 선거캠프 측은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샌더스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무엇에 대해 트럼프를 공격하고 심지어 폭스 뉴스에 출연하기까지 하는 등 샌더스의 행보를 보면, 그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경선이 아니라 2020년 대선이 치러질 11월에 달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을 '오바마-바이든 민주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샌더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심스텝 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 샌더스 선거캠프 측은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샌더스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무엇에 대해 트럼프를 공격하고 심지어 폭스 뉴스에 출연하기까지 하는 등 샌더스의 행보를 보면, 그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경선이 아니라 2020년 대선이 치러질 11월에 달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을 '오바마-바이든 민주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샌더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심스텝 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 샌더스 선거캠프 측은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샌더스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아 같은 공화당 지지주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샌더스가 트럼프에게 맞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유를 언급할 때 여러 차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되풀이했다.

물론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버니라면 이겼을 거야"라는 모든 이론이 다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과 샌더스가 지지하는 좌파단체 '정의 민주당원(Justice Democrats)'이나 '우리의 혁명(Our Revolution)'이 지지한 후보들 중 단 한 명도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의원 의석을 빼앗아오지 못했다. 공화당 지지 주에서 후원금을 많이 확보하고 진보파의 열광을 이끌어냈던 좌파 후보들은 결국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로 패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툴라입(미시간) 같은 좌파 초선의원들이 흥분을 자아내긴 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하원의원 경선 대부분은 기존 민주당원들이 가져갔다.

결론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후보들은 많고도 많았다. 힐러리 클린턴, 쟈 버시, 미트 롬니 등등이다.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기니비소의 비아파다(BIAFADA)

기니비소의 비아파다 종족은 대체로 텐다(Tenda) 종족의 산하 종족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날루(Nalu) 근처 중남부 지역에서 기니 국경지대에 걸쳐 거주한다. 아프리카 이 지역을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 그룹들은 대부분이 세네갈과 감비아에 거주함으로써 집합적으로 세네-감비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러는 기니, 기니비소, 말리 그리고 모리타니아에 살기도 한다.



기니비소는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늪지대의 해안평지이며 내륙을 향해 완만하게 솟아올라 동부지역에 평원을 형성해 남동부 지역은 최고 해발 1,070피트까지 이른다. 나라 전역에 걸쳐 발란타족(Balante), 풀라니족(Fulani), 페펠족(Pepel), 말린케족(Malinke) 그리고 만디악족(Mandyak) 등의 주요 종족을 비롯한 30여 개의 종족 그룹이 있으며 케이프 베디안 사람들(Cape Verdians)은 소수이나 주요한 소수집단을 형성한다.

기니비소의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이나 포르투갈어와

아프리카 언어의 혼합인 크레올어가 통용된다. 비아파다 종족은 니제르-콩고 어족에 속한 비아파다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기니비소의 초기역사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나라 안의 주요 종족그룹은 12세기경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1446년 포르투갈 노예상인들이 이 지역을 둘러본 후 기니비소는 노예무역의 주요 기지가 됐다.

서부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종족들처럼 비아파다 종족 역시 농부들로서 원시적인 농기구들을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곡식을 재배한다. 옥수수, 카사바, 쌀 등의 주요 곡물을 비롯해 호박, 멜론, 고구마, 고추, 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바나나, 코코넛, 망고 그리고 팥, 콩 등의 과일류를 재배한다.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나 젖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개, 닭 등을 볼 수 있다. 사냥은 농사보다 덜 중요하나 야생으로 얻는 과일, 뿌리류, 딸기류, 콜라넛, 시아넛, 또한 팥넛 등에 많이 의존한다.

비아파다 종족은 중정을 사이에 두고 원형으로 배치된 작은 움막집들로 구성된 컴파운드에서 확대가족 단위로 산다. 각 컴파운드는 대체로 울타리나 담으로 둘러 경계를 지으며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운집해 조밀한 촌락을 구성한다. 비아파다족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진흙담으로 둘러쳐진 원형 또는 원뿔형의 초가 형태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비아파다족 공동체에서는 사냥, 고기잡이, 농지 경작 그리고 가축사육 등은 남자의 일이며, 여자들은 농사일을 돕고 야생열매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추장은 촌락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며 추장의 지위는 그의 사후에 남동생이나 순위 누이의 장남에게 승계된다. 남자의 할례의식이 여전히 시행되며 일부에서는 여자할례의식도 계속 치러진다. 이러한 의식들은 사춘기의 성인식과 주로 연관되며 대체로 격리된 '숲속학교(Bush School)'에서 일정기간 동안 갖게 되는 일련의 훈련을 포함한다. 이전에 텐다종족(비아파다 종족의 상위그룹)은 의식적인 식인풍습이 있었다.

비아파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자유로운 혼전 성관계에 대해 관용적이며 결혼상태로 사촌을 선호한다. 신부대로 가족, 일반적으로 돼지를 지불하며 결혼 전 의무적으로 배우자의 집에서 일정기간 노역봉사를 한다. 일부다처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각 아내들은 각자의 움막집을 갖게 되며 남편은 순번

을 정해놓고 각 아내들과 동침할 의무를 지닌다.

신앙

기니비소는 인구의 대부분이 전통신앙을 따라 종족 고유신앙을 믿는다. 전체 인구의 41%가량(대다수가 풀라니족과 말린케족)은 무슬림이며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1.3%에 지나지 않는다. 비아파다 종족의 70%는 수니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인 또는 무생물애도 영이 있다고 믿는 정령 숭배자들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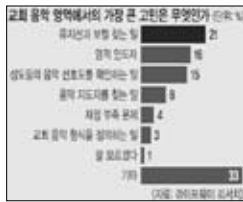
비아파다 종족 중 그리스도인은 6% 가량이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기독교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재 3개의 선교단체가 이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교회성장의 촉진을 위한 지도자 훈련과 제자훈련 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목회자 21% "뮤지션·보컬 찾는 일 어려워"

미국 목회자들은 교회 내 음악과 관련된 영역에서 뮤지션과 보컬을 찾기 위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해 지난달 28일 발표한 결과다.



교회 음악 영역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목회자의 21%가 '뮤지션과 보컬 찾는 일'이라고 답했다. '영적 인도자'(16%)라는 응답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도들의 음악 선호도를 확인하는 일'(15%), '음악 지도자를 찾는 일'(8%), '재정 부족 문제'(4%)가 뒤를 이었다.

마이크 할랜드 라이프웨이위십 이사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이유'에 대해 '교리적 변화'나 '설교방식의 변화'를 꼽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전통적 예배보다 현대적 예배에 관심이 높아진 성도들이 예배 문화와 목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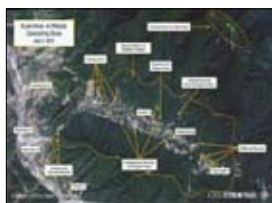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음악 지도자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회 내 음악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2%)이 '교회 음악 지도자와 높은 상호 존중 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했고 '평소 예배를 기획하는 데 많은 부분 협력한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조사에서는 피아노 반주와 찬송가, 찬양인도자를 예배 음악의 필수요소로 보는 인식도 두드러졌다. '예배 음악을 기획할 때의 필수 요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79%)이 피아노 반주를 꼽았다. 찬송가(69%) 찬양인도자(60%) 찬양팀(52%) 오르간 반주(47%)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오케스트라는 9%에 그쳤다.

스콧 매킨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수십년간 교회음악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예배 안에서 음악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찬송가는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며 찬양리더와 찬양팀이 여전히 매주 음악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2%다.

美싱크탱크, 北금천리 미사일기지 공개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금천리' 미사일 운용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6일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곳이 공표되지 않은 약 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

고 소개했다.

금천리 미사일 기지는 강원도 안변군에 있는 북한의 전략 미사일 벨트 내에 있으며, 서울 북동쪽 165km, 일본 도쿄 서쪽 1천100km 거리에 있다.

보고서는 이 기지가 지하 미사일 저장시설로 종종 부정확하게 인용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책임진 북한 인민군 전략군에 소속된 전방 미사일 운용 기지라고 설명했다.

또 소형 미사일 운용기지 중 하나로, 1990년대 초반 사거리 500~600km의 화성-6(스커드 C)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대 또는 연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부대라고 말했다.

1999년 이 부대는 당시로선 신형인 사거리 1천km의 화성-9(스커드 ER)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처음으로 갖춘 곳 중 하나로 확인됐다.

화성-6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을 대부분 타격할 수 있고, 75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화성-9는 위협범위를 한국 전역과 일본 남부 절반으로까지 확대했다.

보고서는 금천리 부대에 북극성 2호(KN-15)처럼 최근 등장한 MRBM이 배치된다면 위협범위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곳 시설들이 인근의 황룡산 조기경보 레이더기지를 운용하는 인력을 위해 물류와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곳은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기지인 삭간물과 갈골처럼 1991~1993년 건설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올해 8월 현재 이 기지는 활동 중이며 북한 기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이 기지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을 넘어'는 지난 11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힌 이래 그동안 삭간물, 신오리, 상남리, 유상리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미국인 70% "한미관계가 美안보강화..."

미국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며 주한미군 증강·유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천59명을 설문 조사해 9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다.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74%가 찬성하는 비율은 74%, 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70%,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68%여서 지지 정당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단체는 매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데, 한미관계가 미국

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 12%는 '증강해야 한다', 57%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합치면 69%로, '감축해야 한다'는 16%, '철폐해야 한다'는 13%였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63%, 민주당 57%,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56%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64%까지 올랐다가 올해 58%로 줄었다.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2018년 4.8점, 2017년 4.5점으로 증가세였다. 러시아는 6.7점, 일본은 6점, 인도는 5.2점 등이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들을 방위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 집으로 써왔으며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2.3%포인트다.

일본인 10명 중 8명 한일 관계개선 바란다지만...

일본인 10명 중 8명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7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계 개선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영방송 TBS 계열 매체 JNN은 7-8일 18세 이상 유권자 1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는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개선하는 쪽이 좋다"고 답했고 "이대로 좋다"는 대답은 13%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7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한국을 수출 감소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하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59%가 "타당하다"고 말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7%는 답변을 보류했다.

응답자의 50%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조기에 개최할 필요는 없다"는 대답은 38%였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3.1%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1.7% 상승한 38.7%였다.

식지 않는 홍콩 시위...미국에 인권법안 SOS

캐리 램 행정장관이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철회를 선언했지만 홍콩 시위는 수

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환 철회 후 첫 주말에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지하철역 유리창을 부수고 출입구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과격 행동을 이어갔다. 시위대는 송환법뿐 아니라 행정장관 직선제 등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시위대는 8일 오후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 집회'를 열고 미 의회가 논의 중인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위 주최 측은 오후 1시30분부터 홍콩섬 센트럴역 근처 차타가든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미국 총영사관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일부 시위대는 오후 5시40분쯤 센트럴역 부근 길에 종이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고, 곧이어 센트럴역의 한 출입구도 시위대가 불을 질러 화염에 휩싸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했으나 센트럴역은 폐쇄됐다. 센트럴역의 외부 유리창은 산산조각났고, 완차이역 내부에도 부서진 유리창이 눈에 띄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시위대는 완차이를 거쳐 코즈웨이베이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여러 차례 쏘기도 했다. 앞서 집회가 열린 차타가든 주변에서는 시위대가 무더기로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트럼프 대통령, 홍콩을 해방시켜주세요'라거나 '우리를 짓밟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도 보였다. 차타가든에 나온 캐빈(30)은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홍콩 정부를 압박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법안의 원래 의도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SCMP에 말했다.

미 의회에서 지난 6월 발의된 홍콩 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비자나 법 집행,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에 특별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인 7일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수백명이 몽콕 지역의 프린스 에드워드 전철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전철 운영사인 MTR이 역을 폐쇄하자 근처 몽콕 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했고 일부 시위대는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프린스 에드워드역은 홍콩 경찰이 지난달 31일 최정예 특수부대인 '랩터스 특공대'를 지하철 객차 안까지 투입해 63명을 체포했던 곳이다. 당시 경찰은 지하철역 안에서 곤봉 등으로 시민들을 마구 때려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부상자들의 병원 이송에 3시간이나 걸린 데다 역사 진입을 거부당한 응급요원이 "부상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부상자 치료를 거부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또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시민 3명이 숨졌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전철역 입구에 조화를 놓고 경찰 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망설을 부인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왕을 다시 체포했다. 왕은 대만을 방문해 홍콩 민주화 지지를 호소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시위를 주도해온 민주인권전선은 오는 15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위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왕을 다시 체포했다. 왕은 대만을 방문해 홍콩 민주화 지지를 호소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시위를 주도해온 민주인권전선은 오는 15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위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리 램 행정장관이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철회를 선언했지만 홍콩 시위는 수

변화와 변질

요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수용되는 사회가 되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반감보다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세시대를 돌아보려보자. 그 사회는 새로운 것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심에 전통을 중시하던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곧 전통에 대한 거부와 반역이라고 여겨졌다. 교회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지닌 자들을 결코 묵인할 수 없었다.

중세 말기의 르네상스가 16세기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중세교회의 장악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결국 그토록 견고하던 중세교회가 서서히 무너졌다. 변화를 거부하던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며 변화를 추구하였던 르네상스의 정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르네상스는 변화를 거부하던 중세교회의 개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능력을 중세교회는 세속적 사상의 도전을 물리치지 못한 채 더욱 깊은 타락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은 르네상스로부터 개혁을 수용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의 세속적 사상을 대항하여 싸워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한 사람

역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려준다. 널리 알려지고 틀이 잡힌 사상과 문화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반드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것을 두고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 있다. 역사의 틀과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중세 르네상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운 르네상스의 문을 연 장본인은 누구일까? 그는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평민 집안에서 흡수자를 물고 태어난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Giovanni de Bici de Medici, 1360-1429)이다.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학문과 예술의 진흥을 위한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 18세기까지 긴 세월동안 유럽 전체에 족적을 남긴 '메디치 가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자이다.

조반니는 로마에서 삼촌이 운영하던 은행을 인수하여 2년 뒤인 1397년

에 플로렌스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이미 상공인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이 아니었다. 고객을 중시하며 주어진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였고, 사회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

그가 유럽 금융계의 실세가 되었다. 교회의 막대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고객이었던 발다사레 코사(Baldassare Cosa)가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던 교황이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해 준 것을 계기로 신용을 얻었다.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주거래은행이 되어 특권을 누리며

이 세위졌다. 잠시 후에 살펴볼 '플라톤 아카데미'는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의 실제적 산실이 되었다. 나아가서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 '메디치 도서관'은 르네상스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였다.

플로렌스의 위상을 세우는 일과 르네상스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고 사랑한 코시모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de Medici, 1416-1469)가 가문을 이어갔다. 불행하게도 그는 지병으로 인하여 5년 만에 사망하였으나, 남달리 조숙하였던 피에로의 장남 로렌조 데 메디치(Lorenzo de Meici, 1449-1492)가 약관 20살에 무거운 짐을 맡았음에도 업적을 남겼다.

레오 10세가 되었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위한 면죄부 반포를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줄리오 데 메디치(Giulio de Medici, 1478-1534)는 로렌조의 조카이다. 태어나기 전에 부친이 암살을 당하였고 곧 이어 어머니까지 잃은 뒤 고아가 된 그는 백부 로렌조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 줄리오의 사촌인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된 뒤에 교황청의 실세가 된 것이다. 그는 1523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로 즉위하였다. 이외에도 메디치 가문은 유럽의 각 나라

종교개혁이 열렸다. 서로 대적관계에 있던 동서교회가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코스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때 코스모와 플로렌스의 지식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 학자 게오르기우스 게미스투스(Georgius Gemistus, 1355-1452)의 플라톤 철학 강연에 열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플라톤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코시모의 장려와 후원 속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1459년부터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본격적으로 플라톤주의에 대해 가르쳤다. 결국 1462년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메디치 가문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그들도 피치노와 그의 제자들에게 르네상스 인문학 교육을 받았다. 피치노는 플라톤에 매료된 자로서 모든 면에 그를 모방하려고 하였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 번째 플라톤이라고 불렀고, 자연스럽게 '플라톤 형제회'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철학, 신학, 의학, 문헌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함께 토론하였다.

이들은 피치노가 추구했던 정신을 공유하였다. 그것은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 사상에 맞추려는 시도였다. 그는 플라톤사상에 근거한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기독교 국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 핵심은 사람에게 근거한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것이 피치노가 중시한 르네상스적 '사람 철학'사상이다. '플라톤 형제회' 역시 사람의 원리에 지배를 받았다. 그들은 개인과 집합체의 행복에 대한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을 인간의 영적 개념에 연결시킨 것이다.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는 것이다. 피치노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향후 메디치 가문에 속한 자들도 공유하였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고대 플라톤주의를 계승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헬라 문학과 기독교 사상의 일치를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성경의 진리로 부터 더욱 멀어지고 인간 중심의 사상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1522년에 마감되었다. 줄리오 메디치가 교황 클레멘스 7세로 즉위하기 전 플로렌스의 대주교로 있을 때, 많은 회원이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이다. 메디치가 업적이 메디치가의 일원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변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성경의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변질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에게 안겨지는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현재도 과거와 동일하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4)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르네상스, 변화 수용 사회로 전환 역할로 종교개혁 원동력 됐지만 인간중심 사고 제어능력은 없어서... 성경진리를 유일기준으로 해야

북부 이탈리아 국가들은 물론 그 너머에 도처로 약진하였다.

한 가문

조반니가 1429년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장남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 1389-1464)가 가업을 이어받았다. 그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체득한 은행업에 관계된 영업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이 유럽전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투옥되고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 평상시 그를 제거하려던 자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러나 전화위복이 되어 이 사건으로 메디치 가문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코시모가 망명생활을 마치고 다시 플로렌스에 돌아오자 그를 열렬히 영접 시민들은 1년 뒤 그를 베네치아의 통치자로 선출했다. 남다른 정치적 감각을 지녔던 그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치적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던 시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으며 관용을 중시하였다.

코시모를 통해 르네상스의 급격한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그로 인하여 '플라톤 아카데미'와 '메디치 도서관'

로렌조는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나 그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조부 코시모가 설립한 '플라톤 아카데미'를 책임지고 있던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에게 직접 개인교수를 받았다. 로렌조가 23년간 플로렌스를 통치하는 동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나폴리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위기를 평화협정으로 마감시키는 등의 업적을 통해 시민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안았다. 나아가서 메디치 가문의 관심거리였던 학문과 예술 분야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플라톤 아카데미'의 역할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이 마윌 학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디치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적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메디치 가문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재력과 정치력을 함께 구사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가문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나아가서 중세교회를 마감하고 종교개혁이 열리지는 시기에 메디치 가문이 교회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로렌조의 차남 조반니 데 메디치(Giovanni de Medici, 1475-1521)는 향후 교황

의 왕실과 결혼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장시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 정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로부터 시작된 인간 중심의 사고가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지오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에 의해 지속되었다. '데카메론(Decameron)'의 저술가로 알려진 그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며 시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라틴 고전을 사랑하던 보카치오가 고대 작품을 읽기 위해 헬라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플로렌스 대학교에 헬라어 강사가 개설되었고, 향후 고전 문명과 모슬렘 학문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서 서방교회로 넘어온 헬라 교사들을 통해 헬라어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었다.

헬라의 지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고대철학자 플라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되었다. 그 중심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 플로렌스를 통치하던 중 1439년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 사이의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various church listings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and international branches.

리더십 코멘터리 (96)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추석리더십

추석의 역사적인 시작

추석이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추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연휴, 명절, 고향, 민족대이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추석(秋夕)은 한가위, 중추, 중추절, 가배일이라고 불리며,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명절로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송편은 추석에 먹는 별미인데 우리만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추석에는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가족애를 나누는 전통 때문에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여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 흔히 '민족대이동'이라고 부른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문화가 창조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추석연휴에 필요한 리더십은 뭘까?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연휴다. 추석연휴에 꼭 필요한 리더십은 뭘까? 모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족 친지들, 고향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세상 민심을 만드는 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가족 분위기와 회사 경영방침, 나아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장밋빛 공약이 담긴

아울러 집안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어머니들도 함께 소통의 동반자가 되어야 온전한 소통 리더십이 창출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버지리더십은 위대한 아들과 딸을 탄생시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아버지리더십은 자녀들이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삶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경험과 연륜이 적은 어린 자녀들을 글로벌리더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버지리더십은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버지리더십의 본질이다. 바둑판에서 미생은 한 집뿐인 상태를 말하는데 두 집을 만들어야 완성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다. 아버지리더십으로 미생을 일깨워 완성을 만들어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따뜻한 쌍방향 소통

추석리더십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차가운 한쪽방향의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따뜻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면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좋은 추석날 맛있는 송편과 음식을 앞에 두고 종종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자기중심적 사

명절 가족모임에 따뜻한 쌍방향 소통의 리더십 필요 배려와 경청, 믿음과 희망 주는 아버지리더십 전제

추석의 역사적인 시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라문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가위의 '한'이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운데'를 나타내는데, '가위'란 신라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쭉한 '가배(嘉排)'라 부르다가 이 말이 변해서 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추석 문화를 창조하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단순히 모여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전통 문화를 돌아보고, 그것을 계기로 창의적인 크리스천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것은 유불선 사상이다. 유교문화, 불교문화, 사마니즘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들은 크리스천들의 의식을 깨우쳐 주고 더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올바른 정의 사회구현과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하루속히 올바른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여

홍보물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눠 주기도 하고, 봉황 무늬가 새겨진 선물을 '특별 관리대상자'들에게 보냈다.

아버지리더십으로 미생을 일깨워 완성을 만들어라

추석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역시 다정다감하고 듬직한 아버지리더십이다.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추석연휴에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아버지처럼 신뢰와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는 가볍고 변화무쌍한 친구리더십보다는 오히려 진중하고 믿음직한 아버지리더십이 요구된다. 아버지리더십은 허튼소리나 빈말을 하지 않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행동가형 리더십과 상통한다. 이번 추석연휴에 아버지들은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가족 친지, 이웃들과 많은 대화 공간을 만들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가장(家長)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명절에도 가족 친지, 고향 사람들과 마음 터놓고 정을 나누는 소통의 미덕을 잊고 지내온 것 같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번 추석연휴를 계기로 소통의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때문이다. 링크이나 루스벨트, 처칠 등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하는 쌍방향 소통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추석 때 상대방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아량을 베푼다면 어느 때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명절이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따뜻한 소통 리더십은 가정뿐 아니라 교회나 기업에도 필요하다. 명절을 계기로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과 직책을 떠나 믿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중간 관리자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다. 회사 간부들은 이번 연휴기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동안 나는 과연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과 원만한 소통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자. 교회나 가족, 회사와 국가에 공동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덕목은 따뜻한 쌍방향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경청,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아버지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 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하늘의 센서

어떤 은혜스런 설교를 듣고 나면 너무나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나?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있었는데 깨달음이 없었던 게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도 감사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많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온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이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침을 수백 번도 삼킬 수 있는데 우리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우리는 다 잃어버렸을 때야 진짜 감사를 안다.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실상은 잃어버린 내 영혼을 위해 내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내어줄 수 없는 목숨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로 믿어지면 우리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일로 덮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것들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센서를 달고 하늘의 것들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할 때 이불속으로 파고드는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매일 심방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도 하루를 마감할 때 보면 그냥 지나간 일들이 무시무시 많고... 입술에는 사랑을 달고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염려와 거짓, 화남, 귀찮음... 이런 것들로 회개할 목록들이 짙찬... 그래서 땅의 것들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본다.

사람들은 대개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 같다. 키가 어느 날 더 크는 것을 멈추듯이... 우리가 멍청하고 안일하게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 삶은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 앞을 지나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에 센서를 달고 사는 자들은 날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의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리라. 아니 그들은 이 땅에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에 공기에 물에 숨 쉬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 산 것들만 계속 말하고 산다면 주눅이 들어 더 잘못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것이 된 모든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면 어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 질서 하나님 회복되신 법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복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일 정하신 법칙인데... 그 순서하나 바로 매기지 못해서 안절부절 방황하는 우리네들... 그렇다. 늘 바쁘고 조금씩 나의 모습은 바로 지혜 없음에서, 욕심에서, 게으름에서 오는 산물임을 깨닫고 조금만 더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늘의 센서가 작동하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화양예배: 오후 2:00 글로벌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영양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p>남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다문화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다문화 Youth예배: 오전 11:20 영은 이예배: 오후 1:2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9:20 2부예배: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a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 365일 24시간 온본 Tel: (714)446-6200, www.gracemj.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ungh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요일예배: 오전 9:45(101동) 수요예배: 오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민 17장 장막 "이름만 모세가 증거의 영광을 본즉 레위 족속을 위하여 난 이본의 지팡이에서 용이 뿜고 순이 뱀 같이 피어서 삼구 열매가 되었다." Tel: 213 924-3340, 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저는 나의 책상머리에 내가 꿈꾸고 사모하는 성경구절을 늘 펴두고 날마다 리마인드하며 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늘 적절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처럼 인도하여 가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까진 욥기 22:27-28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 하곤 했지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갇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 하면 이루어 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취리라.”

그런데 최근 우연히 제가 의도하지 아니한 성경 내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어 밀려왔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른 이 들에겐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

지만 제겐 큰 도전적 말씀으로 다가와 제게 에너지를 주시고 다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목회와 인생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드리고 싶어 기도하곤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2:8).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arth your possession”

이 말씀을 혹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해석의 눈으로 본다면 기독교 본질과 거리가 있는 축복의 이야기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현실이며 우리가 섬기는 교인들은 고상한 신학이론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철학적인 이론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신학적 안목으로 교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일하고 힘겹게 살아가며 희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인식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소시민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작고 무명 한 자기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시 하시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일깨워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큰 축복을 줄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게 유업으로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오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성공은 저급한 신앙적 용어인 것처럼 주장하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편협한 문자적 해석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성공케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실패한 가정들을, 실패한 기업가들을, 심지어 실패한 사역자들을 다시 일어나 성공케 하는 ‘성공 전서’입니다.

물론 최고의 성공은 구원 받

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영혼 구원의 성공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입을 벌려 크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큰 축복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나 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2:8).

KPCA 동북노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동북노회

지난 9일 저녁 5시 은혜교회에서 열린 동북노회 제 33회 정기노회에서는 △최병관 목사의 기도처를 뉴욕글로벌선교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보스톤새침교회 권민혁 전도사의 목사안수 청원을 처리했다.

또 회원교회들의 뉴욕노회 이름에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으며, 내부단합과 노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노회는 지난 5월 총회에 교회내 성윤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성윤리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목회자의 성윤리 지침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목회자 윤리위원회 조식을 논의했으며 총회를 통과했다. 직전 노회장 이은희 목사가 책임을 맡고 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박용진 목사 인도로 기도 정연오 장로, 설교 오영관 목사, 성찬집례 이상훈 목사, 광고 최명해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오영관 목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가?”(왕상19: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당당히 승리한 엘리아가 이세벨의 한 마디에 무너져 로템나무 아래서 죽기를 희망하

고 있다”며 “이 갈멜산과 로템나무 아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목사는 “믿음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수록 말씀을 잡아야 한다. 고독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다. 우리 시신을 사람이나 상식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동북노회는 19개 교회, 목사 38명과 장로 6명 등 44명의 총대가 소속돼 있다.

뉴욕노회

저녁식사 후 7시 뉴욕방주교회(담임 김천수 목사)에서 열린 뉴욕노회 제 61회 정기노회에서 각부 보고에 의하면 동북노회 소속 일부 교회들이 신청한 노회가입에 대해 심사했다. 먼저 한성교회 교회가입, 김일국 담임목사와 김태경 부목사 회원가입 청원을 다루고 뉴욕 그레이스교회 교회가입과 신현국 목사 회원가입 청원을 다뤘다.

또 △벤델한인장로교회(이성국 목사) 교회주소 변경 △정기노회 시간변경 △총회 총대 선거를 가을 노회에서 실시 등의 안건도 다뤘다.



KPCA 동북노회 제 33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욕노회 제 61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또 노회소속 미자립교회와 니카라과 선교대회를 위한 △노회 선교주일을 11월 첫 주에 갖기로 했으며 △9월 19일(목): 원로 공로 은퇴 목사, 선교사 위로행사로 랭캐스터 성극을 관람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노성보 목사 인도로 기도 지재홍 장로, 찬양 이광선 집사, 설교 허용구 목사, 성만찬 집례 김연수 목사, 축도 김석충 목사, 광고 김천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용구 목사(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는 “형통한 사람”(창 39:19-23)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노예로 있던 요셉, 감옥에 있던 요셉이 형통했다는 성경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다”며 “사도바울의 삶이 과연 형통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형통한 길을 가는 노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노회는 24개 교회, 목사 63명과 장로 13명 등 76명의 총대가 속해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 정기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8월 월례 정기예배가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지구 정관수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영여명칭 변경 △사무총장제 영입 △회장장임기 1년(중임 가능) △뉴욕의 타민족 대상 선교(선교사 파송) 등의 의견이 오갔다.

임원들은 기아대책의 주 사업이 아동후원이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임병남 목사(기획국장)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상임자문), 설교 유상열 목사(상임교문), 합심기도 인도 박성원 목사(감사), 축도 한준희 목사(국제국장)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요8:31-3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모세의 출애굽이나 대한민국의 일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주님이 주시는 해방”이라며 “첫째 죄로부터의 해방,

둘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셋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넷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

유상열 목사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요8:31-3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정한 해방은 모세의 출애굽이나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 등의 이 땅에서 해방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는 해방”이라며 “첫째 죄로부터의 해방, 둘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셋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넷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

유 목사는 “죽고 나면 모든 해방이 헛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문제”라며 “목사에게 앞서 성도로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천국소망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9월 정기예배는 25일 오전 10시30분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커뮤니티싱글즈 커뮤니티 벅렛 행사에서 한기형 남가주교회회장이 감사인사하고있다



굿네이버스 나눔대사 위촉식에서 찬양사역자 김수지 씨가 나눔대사 위촉패를 전달받고있다

CCM가수 김수지 굿네이버스 나눔대사

5일 위촉식, “한국과 미국 오가며 활동에 도움”

CCM가수 김수지 씨의 국제 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나눔대사 위촉식이 5일 오전 11시 굿네이버스 USA 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굿네이버스 직원들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 남가주 헬로쉽교회 박혜성 담임목사가 참석해 나눔대사 위촉을 축하했다.

김수지 씨는 “오랫동안 UC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관계로 음악사역을 잠시 내려놓았는데 지난 2017년 가을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돼 굿네이버스에서 나눔대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지 씨의 오랜 친구이자

10여 년 전부터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해온 조수아 씨는 “모든 나눔의 행적을 돌아보면 각자가 한 일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일에 김수지 씨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축하했다.

김수지 씨는 교회와 공연장에서 열리는 나눔콘서트를 통해 1대1 아동결연으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한편 김수지 씨는 오는 10월 4일, 15년 만에 정규앨범 6집 ‘나뭇가지’를 발표하고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제2회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축제에서 김브라이언 찬양사역자가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더욱 뜨거운 신앙생활 약속하는 시간...

제2회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축제

하.자.회(하나님의자녀로회복하는기도, 대표 정성림) 주최 제2회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축제가 7일 오후 5시30분 돌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에서 열렸다.

정성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기도와 찬양축제는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밴드와 수어찬양사역자 김은정 집사의 수어찬양으로 찬양축제를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

정성림 회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만나게 됨을 감사를 드린다”며 “제2회로 모

인 기도와 찬양축제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쁨 받으신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김 형제의 흥겨운 찬양을 통해 이날 교회를 찾은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렸으며 통성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약속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집회는 양수용 목사(주예수산성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크리스천센터 후원음악회

글로벌크리스천센터(GCC, 대표 김미선 교수) 후원음악회가 8일 오후 5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열렸다.

김미선 대표는 “감사와 기쁨으로 GCC 사역을 시작했다”며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기쁨이 살아나는 연주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미선 대표 사회와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후원음악회는 석기향 박사의 오르간 연주, 그레이스 홍 자매의 하프연주, 바에올리니스트 쿤다솔 형제와 피아니스트 신혜정 박사의 2중주, 테너 오위영 목사, 마립바 연주자 크리스티나 천, 그리고 오렌지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이날 음악회는 출연자들과 관객들이 에메이징그레이스를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2019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가을수양회

2019년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구자범 목사) 가을수양회가 10월 7일(월) 오후 4시부터 8일(화) 오후 1시까지 1박2일간 뉴저지 Fair Bridge Hotel & Conference Center에서 열린다. "Confessing Christ(그리스도 신앙고백)" 주제로 강사는 박성일 목사(필라 기쁨의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 회비는 개인 50달러, 부부동반 60달러, 자녀들은 무료다. 예약관계로 9월 30일(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917)353-5477 이윤석 목사(younsuklee@hotmail.com)

퀸즈장로교회 중국어부 찬양 전도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어부(첸위지 목사)가 추추하는 찬양 전도집회가 9월 14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열린다. 대만의 찬양전도자 황귀룬이 초청된다. 한국어 통역 제공.

▲문의: (718)886-4040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 개설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가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를 개설하고 그 첫모임을 9월 24일(화)과 25일(수)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양일간 뉴욕영락교회(33-26 107th street, Corona)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한국 안산빛나교회 유재명 목사. 세미나 후에 점심식사와 교제가 있다.

▲문의: (718)533-1272

뉴욕생명장로교회 제17회 21일 특세

뉴욕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 제 17회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6일(월)부터 10월 6일(주일)까지 매일 새벽 6시 열린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새벽에는 안수기도 시간이 있다.

▲문의: (718)637-1470

모자이크교회 2019 선교음악회

우크라이나모자이크교회 성전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2019 선교음악회가 9월 22일 오후 6시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린다. 오후 5시에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티켓은 100달러. 심플리 트리가 특별출연하며 소프라노 백성화, 최유라, 테너 조현호, 바리톤 김차돌, 피아노 경호현.

▲문의: (718)225-6962

김선옥 사모 별세

뉴욕제자교회 라흥재 목사(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대표)의 부인 김선옥 사모가 지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환송예배는 13일(금) 오후 8시 중앙장의사, 14일(토) 오전 9시 발인예배. 장지는 파인론.

▲문의: (917)588-2934

KAPC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행하라!”

뉴욕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홍준식 목사) 제85회 정기노회가 9월 10일 오전 9시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목사후보생 고시 허락청원: 김정민(퀸즈장로교회), 박병준(뉴욕새사람교회) 전행복(주비전교회) △장로고시 허락청원: 윤지현, 신성재, 박정봉, 정기영, 이정훈, 김지현, 홍성익(퀸즈장로교회), Eugene Lee, Brian Fortson(뉴욕새사람교회) △가을소풍 9월 30일(월) △신년하례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회장 홍준식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 설교 홍준식 목사, 성찬 예식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축도 문중은 목사, 광고 허윤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홍준식 목사는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행하라!”(출7:8-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스런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든 노회원이 되자”고 역설했다.

김성국 목사는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본문으로 “힘든 사역 현장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며 성찬예식을 진행했다.

2부 회무처리는 홍준식 노회장 사회로 이규분 목사의 기도 후 시작해 목사회원 26명, 장로회원 2명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APC 뉴욕노회는 뉴욕시찰 8개 교회, 뉴욕동시찰 9개 교회, 뉴욕서시찰 5개 교회가 소속돼 총 22개 교회, 목사 36명, 선교사 5명, 전도목사 5명, 군목 1명, 무임목사 2명 등 총 47명의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서노회 85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참 성도, 참 일꾼이 되라”

뉴욕서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임동영 목사) 제85회 정기노회가 9월 3일 오전 9시 뉴욕전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인진규씨 장로고시 △우리스사랑의교회(박종윤 목사) 교회이전 허락 △우리스사랑의교회 협동목사 이용복 목사 노회원 가입 청원 등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임동영 목사 인도로, 기도 박정식 목사, 설교 이승원 목사, 성찬 예식 집례 박종윤 목사, 헌금기도 유기철 목사, 축도 백만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승원 목사는 “참 성도, 참 일꾼”(빌3: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누가 참 성도며 일꾼인가?”를 물으며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

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분별하고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나 시대 사조를 따라 일하지 않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것저것 자랑하며 뽐내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역설했다.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록함, 사랑의 근거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욕서노회는 3개 시찰회에 30개 교회, 52명 목사 회원, 5명 선교사, 6명 장로 총대 등이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제5회 코리아푸드 페스티벌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유대관계 다진다”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제5회 코리아푸드 페스티벌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제 5회 코리아푸드 페스티벌이 9월 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렸다. 동 교회는 10년 전부터 매 2년마다 2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며 나눔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종식 목사는 이 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교회가 속한 이 지역(Community Board 11 Queens)을 잘 섬기고자 함”이라며 “그동안 이 지역에 속한 교회가 이 커뮤니티로부터 여러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왔다. 유아선교원, 어린이선교센터를 운영하고 토요일한국학교와 주일예배 등 수많은 차량들이 움직임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또 “둘째는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좋은 유대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다.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한인교회들이 커뮤니티와 격리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함께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식메뉴는 한국 BBQ, 만두, 떡볶이, 각종 전, 비빔밥, 김밥, 잡채 등 외국인에게 친숙한 8가지 메인 디쉬와 함께 각종 음료수, 무료 아이스크림, 무료 팝콘, 무료 솜사탕 코너도 있어 예전보다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향발무, 태권도 시범, 부채춤과 국악난타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석한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방문해 이종식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베이스айд장로교회의 노력과 행사 취지를 치하했다.

(유원정 기자)



새생명선교회 제 13회 사랑의 음악회에서 트리오 연주가 진행되고 있다.

“메밀꽃 피는 언덕” 출판기념회 겸해

새생명선교회 제 13회 사랑의 음악회

암환자 사역단체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 13회 사랑의 음악회가 9월 8일 저녁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례 전도사의 간증저서 “메밀꽃 피는 언덕” 출판기념회도 겸했다.

심 전도사는 책에 대해 “컴퓨터를 배우면서 하나 둘 모아둔 글들이다. 지을 수 없어서 책으로 만들었다”며 “나의 35년이 담겨있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그 끝도 없이 펼쳐진 메밀꽃이 항상 그리웠다. 그래서 책 제목으로 붙였다. 해마다 6월에 음악회를 열었는데 올해는 출판기념회와 같이 하려고 9월에 음악회를 열게 됐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음악회는 이정석 오보에이스트 사회로 정관호 목사 기도 후 KCS합창단, 소프라노 박진원, 바리톤 오화평, 트리오 플롯(장로사) 오보에(이정석) 피아노(김은실), 테너 한문섭, 메조소프라노 박영경이 공연했다.

다.

이어 “메밀꽃 피는 언덕” 출간 축사에 정순원 뉴욕교협회장, 브루클린제일교회 담임 이윤석 목사, 정인국 장로 토포주에 이어 오화평, 한문섭, 박진원, 민경기(트립렛), 박경영과 소나타 다 끼에서 첼로바이어가 공연했다.

정순원 목사는 “저서에 나타나 있는 회생과 헌신의 실천력 있는 체현의 살아있는 신앙여정이 그대로 본이 되어지며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회복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석 목사는 “지난 15년간 정직과 성실, 꾸준함과 공헌의 심장이 열매맺어왔다”며 “지속적인 장래 사역에 함께하시는 임미누엘,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생명 선교회는 매주 목요일 플러싱 섬기교회(담임 조태호 목사)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또 △1월 설립감사예배 △편드레이징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삼 환우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삼 환우와 함께하는 가족 야외회 △추수감사절 만찬 △소년모임 △삼 환우 심방과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 △삼 환우를 위한 건강식생활 세미나 △삼 투병 수기 공모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연락처: (718)460-5506, 288-2477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첫날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제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강사 김풍운 목사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19년 개강부흥회가 9월 3일 저녁부터 3일간 열렸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 강사는 김풍운 목사(맥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로 첫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19:9) 제목의 설교에서 구원 받았는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콜링 받았는가?로 마무리하며 목회현장과 삶에서 경험한 3가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어려움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 했다.

첫날 부흥회는 이종원 목사(총무처장)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동문회 부회장), 성경봉독 김복순 학우, 장학증서와 교환패 수여, 장학금 수여, 찬양 학교찬양대, 말씀 김풍운 목사, 헌신찬양 학생회임원들, 광고 허윤준 목사(학감), 축도 김풍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재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를, 신입생들에게는 교환패를 증명했다.

또 이사회에서 허경화 장로(부이사장)가, 동문회에서 정기

태 목사(부회장)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증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체 학생 중 80-90%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풍운 목사는 둘째 날 “무엇이 더 중요한가?”(느11:1-2), 셋째 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22)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독일찬양선교 마쳐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 지휘자 이다니엘 장로)의 연례행사인 독일찬양선교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

장로성가단 단원부부로 구성된 37명은 3일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4일 Bad Nauheim 양로원 2곳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독일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한마음교회 수요일예배에서 특별 찬양 했다.

양로원 방문 찬양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과 우울증 치유, 주님의 뜨거운 사랑 체험을 간증하기도 했다.

5일 오전에는 쾰른 성당/중앙역 광장 야외에서 찬양과 울동으로 마음을 열고 손잡고 기

도하며 전도했다. 이어 난민캠프로 이동해 난민을 위해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눴다.

6일 오전에는 만하임 양로원 사역으로, 저녁에는 만하임 독일교회에서 찬양을 통해 영혼 구령사역을 감당했다.

7일에는 라인강가 위치한 옌라니어 독일교회에서 찬양하고 8일에는 비스바덴 독일교회에서 찬양했다.

단장 김재관 장로는 “유럽의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 참으로 교회는 크고 결모습은 화려하나 안에는 텅텅 비어있어서 우리 모두가 옛날엔 그들로 인해 신앙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그들을 깨우쳐 일

어나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됐다”며 “다시 그들을 찾아 복음 찬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장로성가단이 독일찬양선교 중 쾰른성당/중앙역 광장에서 찬양하고 있다.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주제

APU한인총동문회 주최 "법과 교회" 세미나

아주사피서픽대학교(APU, 총장 폴 퍼거슨 박사)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법과교회' 세미나가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9일과 10일 양일간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엄습해오는 상황에서 APU한인총동문회에서 한인교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인디렉터 주성철 목사, 마이클페퍼 변호사 그리고 브래드 대쿠스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분열과 문제 출석자"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 이슈에서 안전해지려면 신앙신조에 입각한 교회 법과 내규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신앙신조에 입각한 법이 마련돼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싸워줄 수 있다. 이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때문이며 태평양법률협회는 지난 20년간 4천여 케이스에서 90% 이상 승소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교회에서 부부수양회를 개최할 때 동성부부가 참가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교회 내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에 입각한 법이나 내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신앙신조에 입각한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철 목사는 "교회분쟁이 있는 후 안정화가 된 교회에서, 분쟁에서 패소한 측에서 불만을 갖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예배방해자와 신체접촉을 통해 예배방해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불이



APU한인총동문회가 주최한 법과교회 세미나에서 마이클페퍼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의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반드시 경찰에 의해 예배방해자가 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사는 공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맡겨진 양을 지켜야 하는 일도 해야 한다"라며 "예배 방해 행위는 수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9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정관을 만들 때 성경적 결혼관이 무엇인지, 인간의 성에 대해 성경의 견해가 수록돼야 한다"며 "가주는 법정에서 교회 정관과 내규 함께 본다. 따라서 신앙신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 성경적 결혼관과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이 어떤 정신으로 사업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동성애 반대 이유로 사업장 문을 닫을 뻔한 플로리다주 필립스 제과점의 케이스는 사업장의 미션스테이트먼트가 할로윈 케이크와 동성애케이크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 승소할 수 있었으며 승소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소건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교회와 사업장은 모두 신앙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사역자와 교사를 청빙할 때 LGBTQ 진영에서 교사 혹은 교육부 사역자로 지원하기도 한다. 한인

교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교육부사역자가 필요하기에 단지 영어를 잘한다고 무분별하게 교사와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사역자 청빙시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신앙신조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9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과 학부모회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세속적 정부가 공격하는 것은 어린이로부터"라며 "학교당국에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다. 성교육시간에 행해지는 교육은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조수아 김수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콘서트가 남주웨슬리교회에서 열렸다

'동행' 주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사역...

조수아, 김수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콘서트

조수아, 김수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콘서트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남주웨슬리교회(담임 박혜성 목사)에서 6일 저녁 8시에 열렸다.

박혜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김수지와 조수아가 무대에 올라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로 찬양을 부른 김수지 씨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 삶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첫 곡으로 부른 조수아 씨는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위촉된지 10년 정도 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걸 배웠다"고 말했다.

말하며 "처음 사역할 때는 잡하지 않은 것을 향해 간다 생각했는데 10년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굿네이버스의 사역이 협력해 선을 이뤄낸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조수아 씨는 "이번 나눔콘서트 통해 아프리카 니제르의 아이들과 결연하게 된다"며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굿네이버스가 하는 일이다. 그들이 뛰가 필요하지 고민하고 있다. 교회와 미국 본부가 함께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서로 위해 애쓰는 일의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나눔콘서트는 8일 오후 1시30분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마련

글로벌커뮤니티싱글즈 커뮤니티 뱅킷

글로벌커뮤니티싱글즈 커뮤니티 뱅킷 행사가 7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집사(OC기독교전도회 이사장) 사회로 열린 뱅킷 행사는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본 커뮤니티 홍보영상 소개, 신승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병만 회장(미주한인재단 LA)가 환영 및 추진목적 설명을 했으며 황인상 LA부총영사가 축사하고 테너 최원현(뮤지컬 '도산' 도산 안창호 역)이 특별 축하공연을 했다.

<박준호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상실회복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상실회복 세미나를 15일(주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세미나는 12주 코스로 진행되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주일코스와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진행되는 주중코스가 있다. 세미나는 각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경험담이 담긴 DVD의 시청 및 같은 경험을 체험한 그룹 멤버들과의 대화와 토론이 있고 주제별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모임이다.

▲문의: (626)643-6914 정순옥

'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 목회자 사모 세미나

한국 목회자사모 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 목사, 사장 이영선 목사)이 주최하는 목회자 사모세미나가 오는 10월 7일(월)-8일(화)은 해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피종진 목사, 한기홍 목사, 설동욱 목사, 박태남 목사, 정삼숙 사모가 강사로 선다. 선착순 100명 회비 20달러.

▲문의: (714)336-4478/dskim143@gmail.com 김대섭 행정목사

JC Academy 교사모집

방과 후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는 JC학원(3944 Wilshire Blvd)에서 함께 동역할 선생님을 찾는다. 자격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면 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월~금) 오후 2시 30분~ 5시 30분까지.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문의: 213-924-3340 (이훈우 목사)

자서전 대필

시인이며 자서전대필 작가인 솔로몬 정 집사(월서연합감리교회)가 대한민국 출신자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성공자리에 오른 분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삶의 여정을 담은 자서전을 대필한다.

▲문의: (213)618-1508

기독교 힐링세미나

GIFT 상담치유연구원이 오는 14일(토)과 21일(토) 오전 8시 30분 부에나파크 가스패밀리교회(6551 Western Ave)에서 제 11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그레이스 미션대학의 상담학 수업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714)522-4438

성경일독학교 개강

하늘소망교회(담임 김택수 목사)에서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 수요일 13주 과정으로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성경 일독세미나를 개최한다. 등록비 50달러. 교재는 성경, 구약위크북, 구약읽기 네비게이션을 사용한다.

▲문의: (213)500-2948



LACS 정기연주회에서 출연자들이 공연을 마친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를 향한 내 입술의 고백' LA크리스천싱어스 제 14회 정기연주회

LA크리스천싱어스(LACS, 단장 문혜원)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7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주를 향한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크리스틴 정, 클라라 김, 김도희, 박민미, 문혜원, 김미진, 양유진, 김은혜, 조지영과 테너 최원현, 오위영, 바리톤 김철이, 장상근,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신) '바닥에 새긴 사랑(최효경 등)' '기쁨부으심(신상우)'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유상렬)' '내가 매일 기쁘게(손민해)' '광야를 지나며(장진숙)' '하나님의 사랑(신상우)' '아모르 데이(구자철)' 등이 불려졌다.

이날 공연은 '어지신 목사(김두안 곡)' '왜 날 사랑하나(로버트 하크니스)' '나(최덕신)' '살아계신 주(윌리엄 가이티)' '시편23편(최덕신)' '예수(최덕

LACS는 지난 14년간 LA지역을 비롯해 중가주,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찬양음악회 및 음악세미나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음악회, 자선음악회 등의 음악선교활동을 통해 찬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연해왔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크리스천센터 후원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좋은마을교회 창립35주년 감사예배에서 신원규 담임목사가 2세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전하자'

좋은마을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예배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설립 35주년 기념예배가 8일 오전 11시45분 열렸다.

본 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원규 목사 사회로 열린 설립 기념예배는 박성수 목사(장조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은혜와진리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집 엘리빙턴 목사(페이교회 담임)가 '좋은마을교회' (출3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엘빙턴 목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영광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주의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해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며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도 긍휼을 베푸셨고 기다려 주신다"며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의 희소식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능력이

이심에 감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김동진 장로가 본 교회 역사보고를 했으며 피트 트레비스 씨가 간증했다. 그리고 이날 2세 영아 4명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는 박성민 박사(아주사피서픽대학교 부총장), 장광춘 목사(EKPC총회장), 영김(전 주하원의원), 단 키톤 목사(가든그로브교회 담임)가 맡았다. 이어 이동훈 목사(덴버삼성교회 담임)이 'P.M 사역 7년차'라는 제목으로 비전축사 했으며 김범택 목사(은평교회 담임)가 은혜축사와 더불어 색소폰 연주를 했다. 그리고 김희선 장로(동명교회)가 사랑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날 예배는 배광식 목사(광서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다시 부상

주요 교단 정기총회·입법의회 앞두고...기감 재투표 가능성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와 입법의회를 앞두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높인 것도 이런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 제33회 입법의회를 여는 기독교대한장로회(기감)는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종합하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최근 ‘목회자와 장로 은퇴연령을 2년 늦춘 72세로 연장하자’는 안건을 다뤘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근소한 차로 부결된 것이어서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개위가 이 안건을 채택하면 입법의회에 정식 상정된다.

장개위에서 다뤄진 정년 연장안에는 “목회자 청빙이 어려

운 입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교회’로 제한 규정을 두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정년 연장은 지양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미국장로교(UMC)의 정년인 72세에 맞춰 정년을 2년 늘리자고 제안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이나 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70세 은퇴를 법으로 정해놨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총회법에는 정년 규정이 없지만 통상 70세를 넘지 않는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교단도 있다. 예장백석은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해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예장합동은 올해 총회에 또 다시 목사와 장로 시무 연한을 늘리자는 현의안이 올라왔다. 현의안은 지역 노회들이 교단 정기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 달라고 상정한 회의안을 말한다. 시무 연한을 늘려 달라 현의안은 예장합동 정기총

회에 수년째 상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6개 노회가 정년 연장 현의를 올렸지만, 본회의에서 모두 기각됐다. 예장합동 내부에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목회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교회엔 필요하다”는 논리가 퍼지고 있다.

예장통합은 한 번도 정년 연장안을 정식으로 다룬 일이 없다. 하지만 총대들 사이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 총대는 9일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룬 일은 없지만, 현장 발의를 통해 정년 연장안은 의의된 일은 있다”면서 “교단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감의 개혁성향 목회자 그룹인 새물결의 양재성 총무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겪을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교단의 지나친 노령화도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감독회장 임기축소 대신 권한분산 ‘가닥’

기감, 모든 기관·단체 이사장직 포기 등 개혁안 논의

‘4년 전임 감독회장제’ 개편을 검토 중인 기독교대한장로회(기감)가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는 ‘2년 겸임제’ 대신 권력 집중으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부 목회자들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감독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감은 다음 달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연다. 입법의회에서는 교단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장개위는 최근 경기도 양주 일영연수원에서 4차 전체회의를 갖고 감독회장 제

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이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각종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감 감독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태화, 교역자 은급재단, (재)애향숙, 도서출판 KMC 이사장과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된다. 장개위에서 다룬 개혁안에 따르면 기감 유지재단과 태화를 제외한 행인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기감 유지재단과 태화 이사장의 실권이 커 감독회장이 이를 유지하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곳의 이사장직만 내려놓아도 감독회장이 총회를 장악한다거나 전국 교

“차례 지내기 번거롭다면 가정예배로..”

추석연휴 슬기롭게 보내려면...목회데이터연구소 트렌드 분석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지내는 명절이지만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추석 연휴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가정예배 드리기, 아내와 며느리의 주방 탈출 돕기, 가족에게 배려하는 말 전하기, 친정 부모 돌보기 등을 제안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제13호 주간리포트를 통해 “추석의 전통적 모습 뒤에는 여성들의 힘듦, 가족 간의 다툼, 가정 폭력 등 어두운 뒷면도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7년 9월 엠블레인의 트렌드 모니터를 인용해 ‘추석은 여자들에게 힘든 명절이다’란 답변에 89%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추석은 남자들에게 힘든 명절이다’ 응

답은 34%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추석에 차례를 꼭 지내야 한다’는 인식은 2013년 41%에서 2017년 22%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경우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14%에 그쳐 남성(3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를 인용해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54%이며 기혼의 경우는 ‘용돈 선물 등 경제적 지출이 걱정돼서’(35%)를, 미혼은 ‘어른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34%)를 1순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명절에 가족과 다툼을 벌인 경험은 33%였다. 명절 전후 이혼 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2.2배 많았다고 전했다. 범원행정처가 2016년 기준으로 설과 추석

회의 형편을 돌보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감 본부의 8개 부서 총무(사장) 선임도 각 부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추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감독회장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복수후보 선임과 정에서부터 감독회장이 관여할 수 있다. 총무 선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기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곤 했다.

기감의 개혁성향 목회자 그룹인 새물결의 양재성 총무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감독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기감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람의 문제라는 자성 속에서 성숙한 지도자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는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후 10일간 집계한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는 656건으로 평소의 298건보다 월등했다. 명절이 이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해가 갈수록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종교적 문제이기 전에 여성과 젊은 층의 시대적 트렌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모님이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경우, 가정예배를 권유하고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아내·며느리를 주방 노동에서 벗어나도록 음식 가짓수를 줄이거나 형제·자매들이 1-2가지 음식을 각자 준비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칭찬과 배려의 말을 전하고 배우자 부모님을 번갈아 방문하는 원칙을 세우자고 덧붙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가치중립적 ‘팩트뱅크’를 표방하며 여론조사 공공통계 등 데이터를 2차 가공해 제시하고 있다.

‘EXPLO 2020 통일선교대회’ 출범

“성령 폭발 기회로” 감사 예배

내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릴 ‘EXPLO 2020 통일선교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감사 예배가 지난 5일 파주 충만교회(임다윗 목사)에서 열렸다.

‘EXPLO 2020 통일선교대회(공동대회장 박성민 임다윗)’는 내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와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장항희), CBMC 경기북부연합회(회

장 연명흠)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설교를 한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대표 정성진(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오늘날 우리는 이 민족이 처한 남북 갈등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등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서 “통일선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횃불을 힘차게 밝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임다윗 목사는 환영사를 통

해 “어지러운 현 시국에 보석과 같은 우리 청년들과 5000여 경기도 북부 교회, CBMC 기업인들이 함께 기도해 통일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면서 “민족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대표는 “1974년 서울 여의도광장에 열린 EXPLO 74를 통해 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 또한 이뤄진다고 믿는다”면서 “2020년은 이러한 성령 폭발을 일으킬 가장 완벽한 해다. 통일된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며 대화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생명 도우미 역할 체험 구슬땀

‘세계 자살예방의 날’ 앞두고 생명보듬주일 캠페인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비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8일 오후 경기도 안양감리교회(임용택 목사) 예배당. 하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티셔츠 위엔 생명을 살리는 길을 뜻하는 ‘라이프 워킹(Life walking)’이 새겨져 있었다.

강단에 선 임용택 목사는 “파블로 피카소의 1942년작 ‘황소머리’는 못 쓰는 자전거의 안장을 떼다가 머리를 만들고 핸들로 뿔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1000억원을 쥐도 살 수 없다”며 “삼푼처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준 위대한 작품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성도는 주로 한편에 게재된 ‘생명의 한 칸’안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공간엔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란 메시지와 함께 희망의전화(12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심리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가 안내돼 있었다.

한국교회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생

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하기로 한 생명보듬주일 예배 모습이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교수)는 2013년 우리사회의 자살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9월 둘째 주를 생명보듬주일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해마다 참여 폭이 확대되던 생명보듬주일은 지난달 31일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봉사단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이 공동서명식을 가지며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날로 공식화됐다.

이날 전국 교회에서는 라이프호프가 한국교회에 공유한 공동설교문이 선포됐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설교문과 게이트키퍼(자살위험 대상자를 위로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돕는 사람) 교육 자료가 제공됐다.

예배 후 성도들이 걸음을 옮긴 곳은 교회에서 약 1.5km 떨어진 평촌중앙공원이었다. 올해로 8회째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생명존중’을 주제로 부스체험을 하는 1만여명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37개의 부스에선 고리 던지기, 볼링 등 게임을 하며 생명존중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기를 타임캡슐에 적어 1년 후 걷기축제 때 확인하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초등학생 3남매와 함께 4년째 걷기축제에 참석하고 있다는 표민정(42·여)씨는 “끝 모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생명을 주제로 축제를 열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명존중 교육의 기회가 된다”며 “이 같은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원과 인근 지역 2.8km를 걸으며 ‘생명존중’을 마음에 새겼다. 행렬 중간중간엔 ‘함께해요 사람사랑 실천해요 생명사랑’ 같이 하는 생명존중 가치 있는 ‘사람사랑’ 등의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조성돈 대표는 “생명보듬주일 캠페인 초창기만 해도 ‘자살’은 교회 내 금기어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졌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접점이 됐다”며 “최근엔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담이나 학생교육을 위탁할만한 지역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설명했다.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걷기축제는 오는 11월까지 천안 아산 용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명절이 더 외로운 쪽방촌주민 찾아 사랑 나눔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공동대표회장 이영훈 정성진 고명진 목사)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가 7일 서울 용산구 성민교회에서 ‘동자동 주빈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이 있는 동자동에는 1200여 세대가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개그맨 최형만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노래공연 등을 준비했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행사에서 주민들은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주최측은 참치선물세트를 참석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교봉과 한교총 지도부는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선물을 전했다. 정성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동자동 주민들도 교회가 전하는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맞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교봉은 2011년부터 설과 추석, 성탄절에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조국 후보자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인가”

교회언론회 논평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편협한 사고 비판

한국교회언론회가 5일 ‘최성해 총장의 양심적 발언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패악’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양대 최 총장은 교회언론회 이사장이지만 운영이나 행정이나 논평과 성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이사장이 논평을 내고 본회를 움직여 활동한 것처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억측이며,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논평한 것을 가지고

파를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나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기독교의 복음적 입장을 고려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극단적 사고로 ‘극우’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가짜 뉴스로 교회언론회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목원 초대 대표회장에 김재용 목사

지난 4월 출범 각임원 임명... “하나님께 소명 받은 날”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한목원) 대표회장 김재용 목사 취임 및 임원 임명식이 4일 낮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일 발족한 한목원은 한국교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원로목회자들의 연합체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 목사는 대한예수교성결회 총회장과 성결대학교, 성결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일중장학회 이사장으로 후학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

김 목사는 취임 인사말에서 “저와 임원들의 취임식이 아니라 원로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날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원로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원들은 문세광 목사를 명

예회장에 추대했다.

또 상임회장에 강진문 목사, 공동회장 김일출 김홍대 박장옥 서태봉 이재성 윤재언 조원집 최상호 최화자 목사를 각각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박만석 목사가 맡는다.

이밖에 행정총무 오세영 정용하 김근배 목사, 서기 김종화 목사, 회에 황정일 목사, 부회계 김성기 목사, 감사 장정국 조병환 목사 등이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태(한국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장로는 “원로목회자의 모임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가 한국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의 창 (13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한 목자(牧者)가 요구되는 시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왔다.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가정파탄, 인간관계 등의 여러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저들 중 상당수는 나름대로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다 제 풀에 꺾어 죽어가기도 한다.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9월 9일, 발간한 보고 서에서 "전 세계에는 40조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자살(suicide)하는 숫자가 약 8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15-29세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살은 도로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였다. 이렇게 인간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해도 세상에서 소외된 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누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드는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국가의 공적인 힘과 제도적인 장치로는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는 기독교회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주의 사역자로 부름 받은 선교사나 목회자는 그 사명이 하늘처럼 높다. 철장권

새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양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참 목자들이 필요한 때이다. 이 땅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1. 양처럼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적으로부터 저마다 방어책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거나 아니면 느린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보호능력을 가지고 있다. 카멜레온은 주변 색과 몸 색깔을 맞추어서 잘 들리지 않도록 한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를 세워서 나름대로 자신 보호를 한다.

이에 비해 양은 너무나 온순하며 연약하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울 만한 능력도 없다. 그래서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양들은 참 우둔하기까지 하다. 멀리 있는 풀밭과 시냇물을 찾아 스스로 가지도 못한다. 다른 동물들은 방향감각이 있어서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오지만 양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기 일쑤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

다. 우리의 세상에도 양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런 저런 문제들로 좌초해 그늘진 곳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고독을 씹고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 같은 말뿐이지만 그 심령은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한두 명이라. 이 지구촌은 그야말로 커다란 영적 병동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5:8).

2.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초점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 4:18). 이 말씀처럼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 즉, 예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변의 연약하고 낙오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저들은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도움은 끝이 없고 표시도 안 난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에게 유익도 없고 오히려 교회부흥에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이면 유식하고 재력 있으며 스펙 좋은 세련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 땅에 부름 받은 사역자들은 어떠한가? 우리

속이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중국에 화타(華陀)도 있고 조선에는 허준(許浚)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의성 화타는 당대의 의술가로서 최고였다. 그는 독화살을 맞은 관운장(關雲長)을 치료했다. 이에 조조가 주치의로 지속적으로 군영에 머무를 것을 명령하자 거부하여 사형을 당하였다. 이유인즉, “의사는 환자 앞에 있어야 한다”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백성을 치료하려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참 의사인지를 증명하는 한 단면이다.

조선 땅의 허준은 어떠한가? 그는 1596년(선조29)부터 1610년(광해2)까지 장장 15년 여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집대성했다. 이 서적은 당시의 한의학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망라한 임상의학 백과사전이다. 그의 위대성은 이처

다. 푸른 풀밭과 월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또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준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선”이란 바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이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에 비해 삼꾼 목자는 양을 잘 알지도 못한다. 양을 향한 사랑과 주인의식이 없다. 저들은 피동적이며 헌신적이지도 않다. 그 수고는 조건적이다. 오직 자기 삶을 위해 일할 뿐이다. 따라서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저들에게는 양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맺음 말

육신이든 영혼이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숭고하다. 이런 일에 부름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특별히 선교사나 목회자는 자기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선한목자 상을 좇지 아니하면 어느새, 불나방처럼 화려한 것이나 프로젝트 위주 대중적인 사역에 마음을 빼기 쉽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라는 속담이 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맨해튼의 고층빌딩 아래 주저앉아 있는 못 심령들을 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늘 깨어 철장권 세로 무장한 채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기 발길을 옮겨야 한다. 이는 삼꾼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생명까지 담보하시는 선한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담보하는 자이다.

삼꾼 목자는 양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직업꾼이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화신으로서 영혼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비유가 나온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이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게 된다. 바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간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자녀들이 잘 커서 제 앞 가름을 하며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해도 그 중 한 자녀가 잘못되어있을 경우 부모마음은 항상 그 자녀 때문에 걸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

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3. 선한목자상을 지닌 의성(醫聖)

우리는 흔히 일컬어, 유명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의사를 ‘명의(名醫)’라 한다. 신이 내린 실력을 지닌 의사를 ‘신의(神醫)’라 한다. 의사의 경지를 넘어 성인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켜 ‘의성(醫聖)’이라 한다. 의성은 의사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다. 이는 병을 잘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러 큰 업적을 남긴 것보다 과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초들의 병을 고쳤다는 충고한 인간애에 있다. 여기 언급된 화타와 허준은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의식과 삶에서 선한 목자 상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 이런 의성(醫聖)들처럼 숭고한 직을 밥벌이를 위해 수단화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그리워진 때이다.

4. 선한목자와 삼꾼목자의 차이

선한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드라마 신약 (4)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등장부터 공생애 이후 첫 유월절에 행하신 사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던지셨던 메시지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였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정도 유대에 머무르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무대는 크게 유대와 갈릴리, 이 두 지역입니다. 유대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첫 유월절 사역을 끝내시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적(敵)’으로 정리했고, 또 다른 배경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끼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BC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도 최고의 죄인으로 낙인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요4:25-26)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인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요4:29). 예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800년 동안 역사의 수

1차 갈릴리 사역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나사렛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던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눅4:23-24).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 61장은 메시야가 와서 해야 할 설교인데, 너희는 지금 그 메시야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요셉의 아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갈릴리 순회 전도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이후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는 순회전도이기 때문에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눅4:31-41).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를 마가복음 1장(막1:21-34)에 기록된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차 갈릴리 사역 마지막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양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은 제사 때 쓰일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던 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동안 거동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환자였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후에 병고침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요5:21)이기 때문에 아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고(요5:33),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시고(요5:36-37),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요5:39)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불되고 있던 율법을 기록한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요5: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입니다.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레23:3, ‘여호와와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안식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참 의미는 육체의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데”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즉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누림’이며, 그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사건입니다. 병고침이 전부 아닙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참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슈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검은 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신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거기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갈릴리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과 두 번째 유월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막 부분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레위(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비난을 받으실 때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시간은 점점 흐르고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 즈음에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사건의 진상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증적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요5:19)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선교 펴기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여름의 피약별에 영어가 가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이 그러할 것이며, 우리가 하는 사역 또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두 주간 온두라스에서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0년 사역의 결실인 온두라스 렌카 마을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2002년부터 렌카 인디언 마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마9:35)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산골마을에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작은 가정에서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다시 재회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시 뿐 아니라 오지 산골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내 “외과 의사가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순박한 시골 렌카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섬겼던 마을 교회 사역이 “수술도 성공하고 환자로 살리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차기를 소망합니다.

다. 산골마을에서 드렸던 예배는 늘 저에게 은혜를 더 했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없는 마을이라 손전등으로 성경을 밝히며 말씀을 읽고 설교했던 기억을 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계7)를 사모했던 시절이 새롭습니다. 언젠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뵈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지 산골마을의 삶은 불편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공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 첫번째 감사-렌카 마을 교회이야기

이번 방문을 통하여 교회 개척사역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재산권을 현지 교단 (Alianza Cristiana y Misionera) 미국 C&MA 교단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단에 넘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선교사는 SPARE TIRE” 이기에 현지 교회가 사역을 하게 되면 선교사는 EXIT하게 된다고 했는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현장의 목회자들이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감사드리지는 것은 선교사의 사역들이 사역 후에 재산권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현지 교단으로 넘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는 이제 교단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두 번째 감사-호엘 올빈 미리암 브렌다 이야기

지난 수년의 사역가운데 또

다른 결실은 시골 마을에서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에 유학을 보낸 호엘, 올빈, 미리암과 브렌다와 엔리케(부부)입니다. 올빈과 호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 멕시코로 유학을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 그러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호엘과 올빈은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들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호엘은 지난 12월 침례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올빈은 곧 Alianza Cristiana y Misionera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미리암 자매가 졸업을 앞



카이프리카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두고 있고 브렌다와 엔리케 부부는 3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꿈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호엘 목사님과 올빈 전도사, 그리고 미리암과 브렌다 부부는 각각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 사역, 여자 리더들을 가르치는 일 등 앞으로 하나님께서 20여년 전에 저를 통하여 렌카 마을에 사역을 시작케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통하여 지속하실 것

로 믿습니다.

3. 세 번째 감사-김병수 형제 이야기

오랜 전 기억으로는 12-3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레곤에 사는 형제와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형제는 30년 한국에서, 30년 미국에서, 30년 선교지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의 기도편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저보다도 저의 사역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게스 스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서 몇 번 큰 헌금도 보내주셨는데 당시 저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

까마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이번 온두라스 방문 중 한인 교회에서 그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의 기도편지와 선교보고 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얼굴을 잘 기억하였기에 바로 옆에 앉은 저를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놀라면서 첫 대면을 하며 그간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는 온두라스 산골마을에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

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하는 일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에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4. 네 번째 감사-유진 선교사 이야기

첫째 딸 유진 선교사는 지난 4년 동안 C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팔바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C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면서 유진 선교사도 이제 9월 7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C국을 너무 사랑하기에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미국에서 온두라스로, 다시 돌아와서 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마치고 선교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유진 선교사를 보면서 “참으로 귀한 선교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다음 주중에 한국에서 회회가 있어서 잠시 딸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하여 마지막 주장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땅, 도시, 학교를 함께 거닐면서 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SEED 선교회 사역

2020년은 SEED 선교회가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SEED 선교회의 전신인 CMF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주년이 됩니다. 제4차 SEED 선교사대회 및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모이는 데 SEED 선교사 200여명과 선교 동역자들 1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SEED 선교사대회는 2020년 2월 19일(수)-23일(일) 4박5일이며, 이어지는 초대교회 탐방: 2020년 2월 23일(일)-28일(금) 5박 6일로 터키 셀축/에베소에서 모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및 터키 중요도시 방문하게 됩니다.

6. Mission Village/은퇴선교사 마을 사역

50-100 세대 은퇴 선교사 마을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0-30년 사역하신 분들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경험은 전략적으로, 선교사 훈련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참으로 소중한 선교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교미래를 준비하는 은퇴선교사 마을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올해 (2019년)부터 실제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꼭 감당하여야 할 사역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드림 segyunjang@gmail.com 703-586-8925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내분비 질환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내분비계 질환은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한국인에게 흔한 당뇨병이나 갑상샘호르몬 분비의 과다 혹은 저하에서 오는 갑상샘항진증이나 갑상샘저하증, 최근에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대사 증후군 등이 모두 내분비 질환에 포함된다.

당뇨병은 체중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생산은 충분하더라도 체내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서 정상 수치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기 손상을 일으켜서 합병증을 유발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본인이나 필리핀계 등 아시아계통의 후손들은 급격한 식생활 변화와 항상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미국에 이주한 후

에 당뇨병의 발병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흰쌀 중심의 식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생활 위주로 계속 바뀐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처럼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에 흔한 복부비만(내장 지방)도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분비질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복부지방과 내장

지방의 축적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필리핀계 등 아시아계통에서 흔한데 복부지방은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복부비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내장 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 복부 지방 흡입술로는 제거가 안 되고 체중조절을 통해서만 감소가 가능하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www.joyla.com	
조이 서적 213-380-8793		

영어로 보는 성경 (34)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Jonah 1: 1-3

1)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2)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3)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hish.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NIV 1984)

WORD & IDIOM

* utterly: 아주, 완전히 * despise: 경멸, 멸시하다 * deceive: 기만하다, 속이다 * cleft: 갈라진 틈 * heights: 높은 곳 * say to yourself: 속으로 생각하다, 혼자말을 하다 * bring A down to ~: A를 ~로 끌어내리다 * soar: 높이 치솟다, 큰소리치다 * nest: 둥지 * Amittai: 아밋대(인명) * Nineveh: 니느웨 * preach: 설교(전도, 전파)하다 * come up: 다가오다 * run away from ~: ~로부터 도망치다 * head for ~: ~로 향하다 * Tarshish: 타시스 * go down to ~: ~로 내려가다 * go aboard: 승선하다 * sail for ~: ~로 항해하다

GRAMMAR

1)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주의 말씀(이)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왔다

→ 주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2)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니느웨의 큰 도시로 가라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하여 전파하라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때문에(그러하다)

그 도시의 악함이 내 앞에 다가왔다 → 니느웨의 큰 도시로 가서 그 도시를 향하여 전파하여라, 왜냐하면 그 도시의 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2)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에서 (great city)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인 것은 (of Nineveh)가 뒤에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화의 상대가 알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즉 불특정한 어떤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그 도시)라는 의미이다. 관사의 사용은 이론으로 따지기보다는 평소애 관심을 가지고 익혀서 입에 자연스럽게 불어 나오게 해야 한다.

3)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hish.

그러나 요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다

그리고 타시스로 향하였다

→ 그러나 요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쳐 타시스로 향했다.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그는 옴바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 항구로 향하는 배를 발견하였다

→ 그는 옴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항구로 향하는 배를 발견했다.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삿삿을 낸 후

그는 배에 올랐다 → 그는 삿삿을 내고 나서 배에 올랐다.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그리고 타시스로 항해하였다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 그는 삿삿을 낸 뒤 배에 오르고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타시스로 항해했다.

*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여기서 (where)은 계속적 용법으로 *인 관계부사로서 (and there)의 뜻을 갖는다. 관계대명사와 달리 where, when 등의 관계부사 뒤에 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 (that port)는 타시시의 항구를 의미한다. *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는 분사구문이다. (After paying the fare)에서의 주어는 뒤 주절에서의 주어와 같다. (After he paid the fare, he went aboard)와 같은 의미이다. * (to flee from the LORD)는 요나가 왜 타시스로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to+V)가 사용되었다.

STUDY & THOUGH

■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도피를 하였다. 이 방인을 경멸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진 요나로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과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삶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There is no place where we can escape from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월 거룩한 열심을 가지라(히12:14-17)찬 393장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의 정착지인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보기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14). 죄사함을 기본으로 모든 생활이 주님 중심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둘째,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14). 이 화평은 거룩함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 화평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거룩이 먼저이고 화평이 따르는 열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합니다(15). 우리 생활에 성결을 더럽히려고 공격하는 온갖 거짓 교훈은 쓴 뿌리를 제하고, 음행한 일을 버리고, 망령된 일을 버려야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 안의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 화평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거룩이 먼저이고 화평이 따르는 열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합니다(15). 우리 생활에 성결을 더럽히려고 공격하는 온갖 거짓 교훈은 쓴 뿌리를 제하고, 음행한 일을 버리고, 망령된 일을 버려야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 안의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 옛 언약의 위엄(히12:18-21)찬499장

그리스도인은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새언약을 돋보이게 하려고 옛 언약의 위엄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첫째,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에 접했는데도 크게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그에게 완전한

복과도 집중하여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심히 두렵고 떨리는 위엄 속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주의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안전하지만 새 것이 올 때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 위엄 속에 살게 하시려고 언약의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큰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수 새 언약의 영광(히12:22-24)찬221장

새언약의 머리,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새언약의 위엄은 옛언약의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자는 실체라면 후자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사도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첫째, 시온산의 실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22).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위엄을 본 자입니다(벤전1:17-21). 둘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머물

러 있습니다(23).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23절에 여러 용어로 표현된 교회를 총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으려고 힘쓸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24). 이것은 영적 두려움을 가지나 하늘의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새 언약의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목 경건으로 섬길 이유(히12:25-29)찬506장

여호와 경외함으로 표현된 믿음이란 경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왜 경건으로 섬겨야합니까? 첫째, 마지막 완성될 위엄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5-27).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최후의 비참함을 알고 더 큰 영광을 본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동치 않는 영존한 나라를 받았

기 때문입니다(28).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으로 보여진 것이 완성된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증거하는 것 곧, 진동치 않는 나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한 경건은 진정한 평화가 지배합니다. 셋째,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28-29). 경건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참된 경건으로 주를 섬깁니다.

금 새언약 백성이 행할 적극적인 일(히12:1-3)찬19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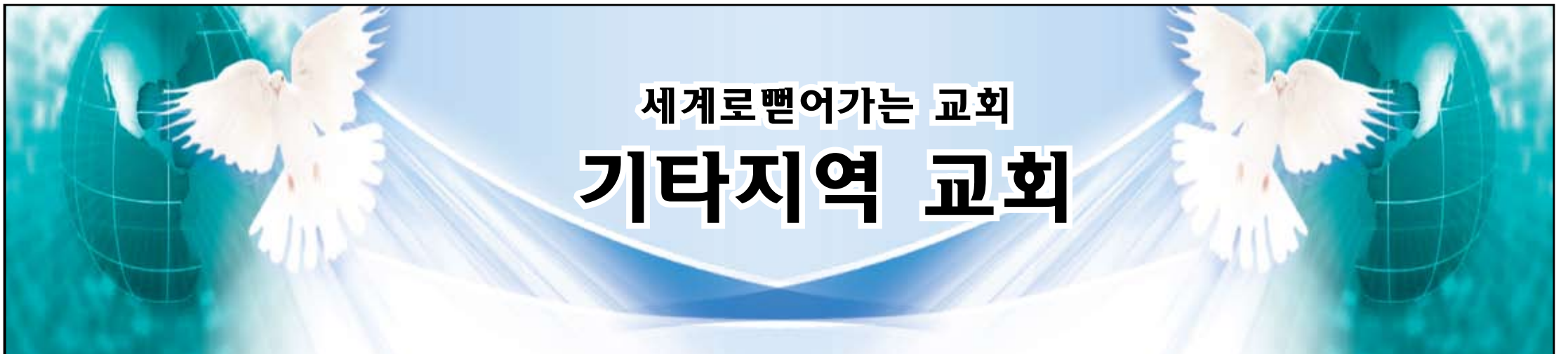
새언약 백성이 행할 적극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합니까? 첫째, 형제사랑으로 나타납니다(1). 혈연보다 더 강한 영연으로 연합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손님 대접을 힘써야 합니다. 황금물로 알려진 남을 대접하려는 열심, 곧, 덕을 세우려는 열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소자에

게 배운 작은 행위가 주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삼금이 따릅니다. 셋째,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팔복의 최고봉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동참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은 여기서도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약공동체인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토 새언약 백성이 행할 소극적인 일(히12:4-5)찬456장

위의 적극적인 일 외에도 3가지 소극적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건강한 결혼생활을 세우기 위해 온갖 음풍을 떨리고 음행과 간음의 유혹을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4).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궁핍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5). 돈은 귀한 것이나 그 돈에 대한 애정이 일만약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항상 싸워야 합니다. 여

기에 실패한 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돼 온갖 죄를 가져와 주께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궁핍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부요자가 돼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5). 어떤 난관에서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심을 믿고 그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락, 물욕, 염려를 조심할 때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78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9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323)665-0046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타인에게 친절하고 아기를 갖지 마라!

BBC, 인간이 번식 중단하고 멸종해야한다는 '반출생주의' 보도

인류가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반(反)출생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어디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추구할까?

"그냥 지구 한쪽에 구멍을 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잉글랜드 동부에 사는 29세의 토마스는 자신의 말이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지면 안되고 인류는 점차 멸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반출생주의'라 불리는 철학이다. 사상 자체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 SNS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페이스북과 레딧에는 수십 개가 넘는 반출생주의자 그룹이 있다. 일부는 회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 레딧에서 반출생주의 게시판은 회원이 3만5천여 명이다. 페이스북의 반출생주의자 그룹 중 하나는 회원이 6천 명이 넘는다. BBC는 인간이 번식을 멈추고 멸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반출생주의자들을 보도했다(Anti-natalists: The people who want you to stop having babies).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이유로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유전에 대한 우려나 아이들이 고통 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도 있고, 동양의 개념(태어날 때 동의를 얻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나 인구과밀,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다.

모두 인간의 번식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아직 비주류지만 이들의 관점 일부는 (특히 지구의 상태에 대한 관점) 점차 주류의 논의에도 스며들고 있다.

반출생주의자는 아니지만 서식 공작(영국 해리 왕자)은 최근 자신과 부인이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이를 둘까지만 가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는 몇년 전 유튜브 댓글에서 반출생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다. 그 이후로 그는 페이스북에 있는 한 반출생주의 그룹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됐다. 그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자신의 토론 능력을 시험할 곳이 된 것이다.

반출생주의에 대한 그의 열의는 단지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마스는 모든 인간들의 삶에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영국 건강보험(NHS)을 통해 정관수술을 받으려고 시도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NHS의 의사는 불임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반출생주의 그룹 내에서 허무주의적 표현이 종종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인 위협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멸종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토론 연습인 것처럼 느껴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NHS의 의사는 불임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반출생주의 그룹 내에서 허무주의적 표현이 종종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인 위협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멸종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토론 연습인 것처럼 느껴

졌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NHS의 의사는 불임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반출생주의 그룹 내에서 허무주의적 표현이 종종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인 위협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멸종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토론 연습인 것처럼 느껴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NHS의 의사는 불임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반출생주의 그룹 내에서 허무주의적 표현이 종종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인 위협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멸종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토론 연습인 것처럼 느껴

를 갖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라 했다. "저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잉태되기 전에 아무런 필요나 욕구도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고통 받고 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는 말한다.

커크는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이 반출생주의자가 됐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이곳에 있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인생이란 개념을 하는 데 동의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의의도 없을 거예요." 그는 말한다. "그런 동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 개념은 반대로도 작용한다. 인류를 한 방에 날려 보내는 빨간 버튼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커크와 대부분의 반출생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생을 멈추길 바란다.

이를 가지면 아이들이 우울증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림 삶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는 외부인들이 종종 반출생주의자 공동체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저희를 미치광이 정신병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는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한다.

최근 반출생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시킨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기후변화다. 반출생주의 그룹의 글들을 보면 분명히 이들의 사상과 환경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사상, 최근 SNS통해 큰 호응 환경 관심 증대, 기후변화 따라...삶의 철학으로 발전

반출생주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또 있다. 그룹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관한 경험을 자주 공유하며 때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갖는 것을 비난한다.

"나는 경계성 성격 장애와 양극성 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이 사람은 아이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그룹에서는 자살을 고려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댓글도 있었다. "저는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았어요" 토마스는 말한다. "우울증은 우리 가족 내력이기도 해요. 만약 제가 아

동에는 걸치는 부분이 많다.

"지금과 같은 때에 아이를 갖는다는 건 이기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며 비건(엄격한 채식주의)이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며, 동물권 옹호론자인 낸시는 덧붙였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환경을 더 파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매우 화난 반출생주의자들"이란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이들이 유엔에 보내고자 하는 청원서가 공유되고 있었다. '기후재앙의 인구과밀적 근원-전 세계적으로 출생은 이제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까지 2만8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환경을 위해 아이를 갖는 걸 자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퍼플레이션 매트리스'라는 자선단체가 (반출생주의) 단체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를 제안했다. 사실 이들은 인류의 멸종보다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온 좋게 거주하고 있는 이 행성과 인류의 화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국장인 로빈 페이너는 말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이를 더 조금 갖고 더 작은 규모의 가족을 꾸린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반드시 환경재앙으로 이어질까? BBC의 글로벌 인구전문기자 스테

"임산부를 볼 때마다 내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혐오다." 한 사용자는 "나는 임산부의 배가 싫어"라고 써진 그림 옆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모든 반출생주의자들이 어린이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에요." 낸시는 말한다. "어쩌면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 저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비판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반출생주의자 그룹에서는 사용자들이 전쟁 지역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거나 심지어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때로는 이런 표현이 우생학적으로 들린다.

우리와 대화한 반출생주의자들은 이런 생각들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아이를 갖는 것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한다. "그런 곳에서는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덜하죠."

그는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우려하는 편이었다. "저는 분명 아이를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소득 지역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의 반출생주의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낸시는 말한다. 그는 우생학에 반대한다. "왜 불이익을 당할 위치에 있다고 특정집단을 택하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반출생주의자들에게 일반적인 삶의 철학이 있을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겠죠." 커크는 말한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번식하지 마라."

책 소개

'씩난 지팡이' '신구약 성경개관' 저자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신구약 성경개관이 바이블선교회에서 발간됐다. 이 책의 저자 이학진 장로는

성경 먼저 이해하고 통독하려는 요구 부응

"지난 2012년 '성경의 이해와 통독을 위한 썩난 지팡이'가 출간 됐다"며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통독하려는 요구가 많아 저서 분석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예수님께서 저

로 하여금 복음의 빛진 자임을 깨닫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게 하셨다"며 "은혜 속에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서는 제1과 성경개요, 제2

과 모세오경, 제2과 역사서, 제4과 역사서 2 그리고 선지서, 제5과 시가서, 제6과 중간시대와 사복음서, 제7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제8과 일반서신과 계시록으로 엮여져 있으며 부록 및 참고색션에서는 통합사 복음서의 시간대 별 구분 및 요약, 참고문헌과 저자약력이 담겨있다.



(박준호 기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A-20 혹은 J-1 Visa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